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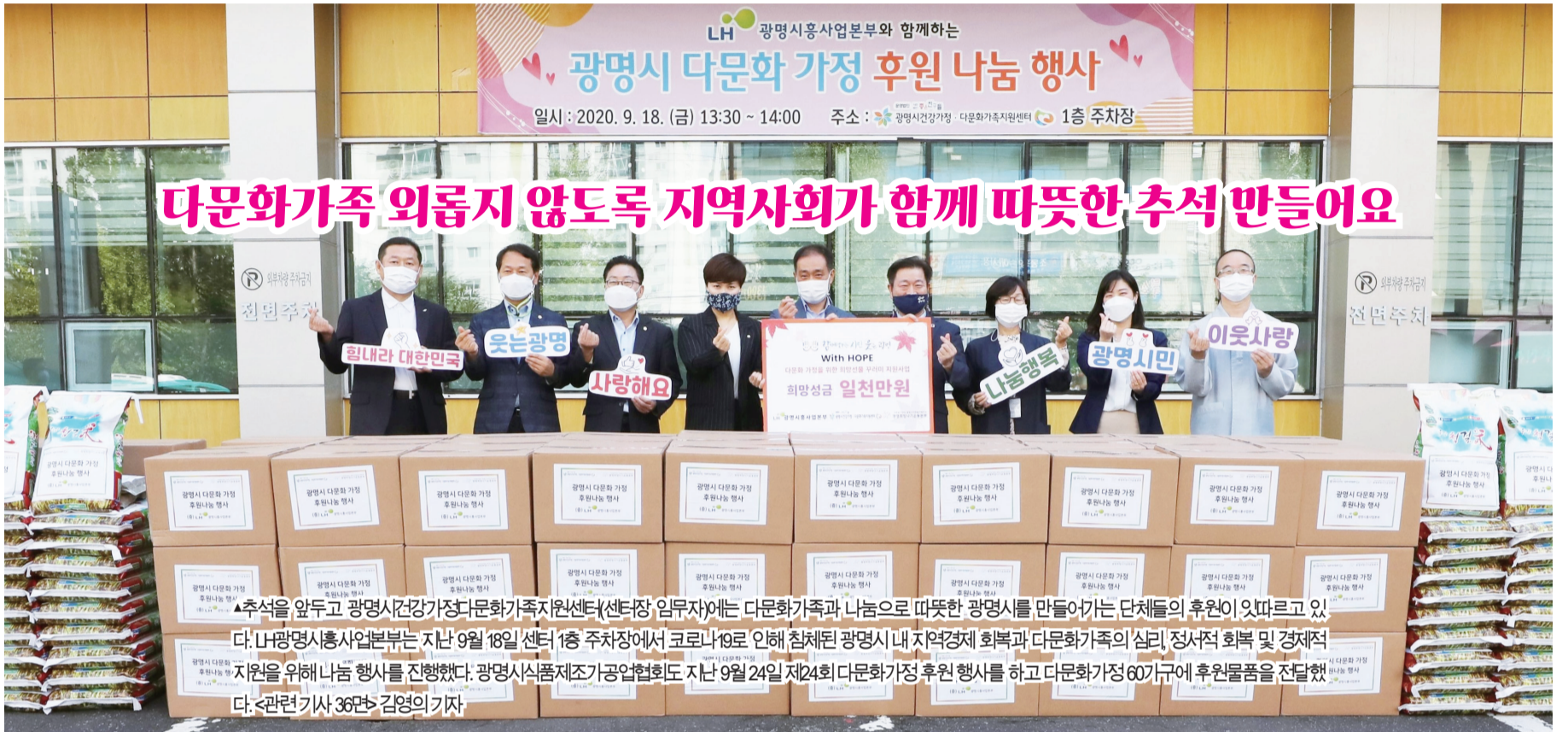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 031-257-1841

제182호 2020년 10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다문화가족 외롭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추석 만들어요

▲추석을 앞두고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에는 다문화가족과 나눔으로 따뜻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나광명시총사업본부는 지난 9월 18일 센터 1층 주차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광명시내 지역경제 회복과 다문화가족의 심리, 정서적 회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도 지난 9월 24일 제24회다문화가정 후원 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 6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36면> 김영의기자

10월부터 다문화가족과 영주권 지닌 외국인주민도 산후조리비 지원

10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 어려운 경우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

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나 모바일형)로 지급받는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住权的外国人也可以得到每名新生儿50万韩元的地区货币。从10月15日开始,在京畿道生育时,不管居住期间如何,每个新生儿将获得50万韩元的产后调理费,作为地区货币进行支援。

为此,京畿道于今年7月15日修订了《京畿道产后调养费支援条例》,删除了以前选定标准的“京畿道居住1年以上条件”。

特别是根据《社会保障基本法》与保健福利部推进社会保障制度变更协议,本月9日保健福利部承认有必要放宽居住期间条件,向全体生育家庭扩大支援。至此,京畿道将实现“普遍无偿福利”,向所有生育家庭无条件支付每名新生儿50万韩元的产后调理费。

<중국어 43면, 베트남어 34면, 러시아어 15면> 이지는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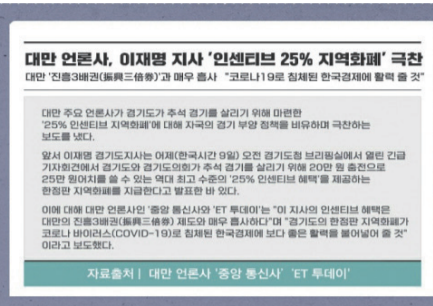
중국어(Chinese) 中文 21, 24, 26, 31, 4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8, 32, 34 일본어(Japanese) 日本語 4,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9, 28, 44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1, 12, 15, 16, 17, 29, 31, 47 영어 English 20 방글라데시(Bangladesh language) 13 네팔어(Nepali) नेपाली 14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3 교육 Education 4, 16, 21, 28, 29, 32, 36, 47, 48 육아 Child Care 17, 33, 42 생활정보 Information 4, 14, 20, 31, 39 코로나19 Corona19 46 보건 Health 22, 24 취업 Job 30 복지 Welfare 5, 21, 25, 26, 44 금융 Finance 6, 19 비자체류 Visa 11 문화 Culture 35 인권 Human Rights 13 한국어 Korean 7 이중언어 Bilingual 28, 43 산후조리 Postnatal Care 1, 15, 34, 43 부동산 Real Estate 8, 12, 17, 31 인터뷰 Interview 23, 30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 속 외신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정책 호평!

침체된 경제 살릴 창의적 경제정책으로 평가,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등 소개



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우선 1인당 연간 50만 원(약4만5,000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증세논란,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비판 등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관련 쟁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료 경기도청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빈 하셋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다. 세계 각국이 실업 대란의 공포에 시달리며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이 K-방역에 이어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주목했다.

■ 재난기본소득, 위축된 경제 살리는 창의적인 해결책

미국의 한 언론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린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소개했다.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

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의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고'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FP는 한국이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방역재정 대응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컸던 이유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매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비현금(non-cash)을 지급했다'며 '주민당 3개월간 쓸 수 있는 85달러를 지급했는데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정부 지원금의 많

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린 데 반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한국의 정부 지원금은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현금(non-cash)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FP의 분석이다.

■ 일본 경제지, 대표적 기본소득 도입론자로 이재명 지사 조명

외신은 지역화폐와 함께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유력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4일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하며, 대표적 기본소득도입론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명했다.

신문은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

"겨울 없는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주민 위해 외투 기부해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 이주민 위한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동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외국인정책과(과장 홍동기)와 가족다문화과(과장 윤지영)가 주도해 외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외투나눔 대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외국인 이웃을 위한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행사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동남아 등 따뜻한 나라에서 온다는 점에 착안해 겨울 외투를 나누기 위해 시작됐다. 외국인주민이 200만명을 훨씬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적어도 30%, 60만명 이상이 ‘겨울이 없는’ 더운 나라 출신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사)밥일꾼이 주관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부터 겨울외투를 기부받아 외국인주민에게 기부하는 행사가 시작된 것이다.

외국인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는 북

부청사 별관 4층과 남부청사 행정도서관동 1층에 각각 겨울외투 기부함을 설치해 두고 기부를 받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10월 12일까지 입을 수 있는 겨울외투를 기부하면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을 거쳐 주최 측이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게시한다.

외국인주민은 10월 12일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외투를 확인한 뒤 최대 2개의 외투를 신청하면 된다. 외투는 점퍼, 코트, 패딩류로 남과 여, 성인과 아동용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 전 직원들이 옷장을 열어보고 가족들에게

이제는 덜 필요해져 잠자고 있는 외투를 기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겨울이 없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언어 습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부 행사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정 소외 없도록 할 것”

“코로나는 위기이지만 새로운 복지정책 기회,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고양시 만들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다문화 정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복지 정책을 펼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도내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도시다. 일찌감치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공식화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수용성 향상 필요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고양시는 2008년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의 다른 도시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 고양시만은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독립 센터 운영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10회째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주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양시의 다문화 정책이 앞서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개선안, 2020 연합뉴스 다문화 포럼'에 이재준 고양시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은 최근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과 문제점을 공개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오윤자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과 김대선 원다문화센터 원장, 홍안나 전 역삼글로벌센터장,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다문화가정 지원책을 논의했다.

2013년 열린 제1회 다문화 포럼부터 이번 행사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온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캄보디아 출신 스타 당구선수 스롱피야비 씨도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학금 수여식도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장학생 10명 가운데 대표 1명만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재준 시장은 “행복도가 높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은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며 “이들이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건과 교육은 물론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며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부처로서 세심하게 이들을 지원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연합뉴스 정리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안내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지원
서비스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행정·사업 기관 이용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이용시간	9:00 ~ 18:00 (월 ~ 금)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goyangtmc@hanmail.net), 팩스, 출장(외부) ※ 사전예약 필수!

통번역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 서비스의 지속적 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요청
- 무리를 약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본청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법적 책임 및 공증번역자 확인시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 TEL : 031)938-9805~6. FAX : 031)938-9803
<http://goyangsi.liveinkorea.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27 경원빌딩(4층)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Goya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꽃 소비 활성화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2020. 9. 26. (토) ~ 10. 11. (일)
일산호수공원 제3주차장

차 안에서 안전하게!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

- 장 소 : 일산호수공원 3주차장 (고양600년기념전시관 앞)
- 운영시간 : 평일 13시 ~ 17시, 휴일 13시 ~ 18시
- ※ 걸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화훼 판매도 진행합니다! (동시 방문 30명 이하로 제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온라인 고양 플라워 마켓

- 판매처 :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www.flower.or.kr
- 배송범위 : 고양시 전체
- ※ 온라인 상품은 배송료(3천원)가 추가됩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국화(大) 9,000원	꽃바구니 15,000원	허브세트 15,000원	호접란 30,000원
다육바구니(중) 20,000원	스킨댄서스 8,000원	아레카야자(大) 22,000원	소피야고무나무 8,000원

더 많은 화훼 상품이 궁금하다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 확인 www.flower.or.kr

이번 가을에는 꽃과 함께!
일산호수공원&화정역광장 시민힐링정원

고양국제꽃박람회 * 상기 모든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및 추위 속의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 031-908-7750

이주여성과 미혼모 돕기, 어르신 따뜻한 마음

고양시니어클럽,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들과 나눔 실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고양시니어클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가닉 탄생용품 55세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신생아 탄생선물세트는 배냇저고리, 싸개담요, 턱받이, 모자로 구성됐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모든 항목을 인증받은 오가닉 원단으로 만든 제품으로 만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단 중 하나인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어르신들이 손으로 만든 100% 수제품이다.

고양시니어클럽 신우철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일자리사업도 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관장은 또 “받으시는 분들의 기쁨은 기부금액의

10배 100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어르신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양시가 설립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근로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노인전담일자리 기관이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이번에 기부한 탄생용품세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500매를 고양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문의는 유선 (031-904-2611~2)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고양페이 20만원 쓰면 3만원 소비지원금

11월 17일까지, 다문화가족도 즐거운 고양페이



카드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차는 10월 26일, 2차로 11월 26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받은 소비지원금 3만원은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 사용해야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청년수당, 청소년교통비수당 등 정책발행금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일반발행으로 충전한 카드만 인정된다. 9월 18일 이전에 충전한 금액도 인정된다. 또한, 반드시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프라인(농협)에서 등록한 카드만 사용액 집계가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소비지원금을 많은 시민들께서 지급받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소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농협은행(원당, 축산 농협 제외)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9월 17일부로 교통카드 기능이 첨가된 새로운 고양페이 카드가 발행됐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경기도 소비지원금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지원금은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고양페이로 20만원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 2만원을 즉시 지급받고, 기간 내 20만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3만원까지 받아 총 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비지원금은 1,000억 원의 예산규모로 경기지역화폐

小学生以下20万ウォンの児童特別ケア支援金、中学生15万ウォンの学習支援金

政府は9月23日、各種支援金などの支給計画を確定した。小商人新希望資金と緊急雇用安定支援金、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求職支援、通信費支援などだ。

中学生以下に児童特別ケア支援金

児童特別ケア支援金20万ウォンは9月28日から支給が始まった。未就学児童は児童手当で受給口座に、小学生などはスクールバンキング口座に支給する。13~15歳中学生学齢期児童へ支給される非対面学習支援金15万ウォンは、事前案内・同意および対象者確定などを経て10月初旬に支給される予定。失職・休廃業により所得が減少した55万世帯に提供する緊急生計支援金は、10月中に申し込みを受付ける。審査を経て11月から支給する。

16~34歳と65歳以上の通信費支援

移動通信料金支援金2万ウォンは、10月の通信料から差し引く方法が確定した。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満16~34歳(1985年1月1日~2004年12月31日生まれ)、満65歳以上(1955年12月31日以前生まれ)の国民を対象に、9月現在保有している携帯1回線に対して料金2万ウォンの減額支給する。

別途の申し込みは必要なく、減免対象者の通信費から一括して差し引く。移動通信3社の携帯と節約電話(알뜰폰)·プリペ이드電話は減額対象だが、法人電話は除外。一ヶ月の通信料が2万ウォン未満の場合、差額は11月料金から減額する。

支援対象への個人別案内は、秋夕前に該当携帯の文字メッセージ(SMS)で送付する予定。問い合わせは現在加入中の通信社コールセンター、通信費支援専用コールセンター、科技情報部CSセンターへ。各種支援金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汎政府次元のワン・ストップ・コールセンター(간바레大韓民国コールセンター: ☎110)へ。

追經事業別支援内容と手続きなどについては事業主管部署のコールセンター、▲中小企業ベンチャー部コールセンター(☎1357) ▲雇用労働部コールセンター(☎1350) ▲保健福祉部保健福祉相談センター(☎129)を利用すればよい。

<한글 기사 36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고양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020. 9.25(금) ~ 10. 16(금) 평일
※ 추석 전 신속지급을 위해 9.26(토)~27(일)도 접수합니다.
지급시기 2020. 9.28(월) ~ 10. 30(금)

정부가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 다문화가족도 신청 서둘러야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재정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 원

<p>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 원 (377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정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조 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용자) 0.5조 원 	<p>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 원 (119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조 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원 실직자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0.3조 원
<p>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 원 (89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 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0.03조 원 	<p>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 원 (1,000만명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 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 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0.9조 원 목적예비비 0.1조 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은 신청을 서둘러야겠다.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

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특수고용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10월 12~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

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의 신청은 9월 24~25일 접수하고, 3순위 신청은 10월 12~24일 받는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지난 9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한다.

<관련 기사 36면>

<중국어 26면, 베트남어 아래, 일본어 21면, 태국어 44면> 이지은 기자

Tiền hỗ trợ đa dạng các loại trợ cấp từ chính phủ, gia đình đa văn hóa phải đăng ký nhanh

Quỹ hỗ trợ hy vọng mới và tiền trợ cấp ổn định hóa tuyển dụng khẩn cấp, tiền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tiền phí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v..

Chính phủ đang đưa ra quyết định nhanh chóng triển khai tiền trợ cấp các khoản như tiền nuôi dưỡng trẻ em,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và tuyển dụng đặc biệt (ngành tuyển dụng đặc biệt).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freelancer

Đặc biệt tiền trợ cấp lần này nếu người nào đăng ký trước thì sẽ được nhận tiền trước nên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nên nhanh chân đăng ký.

Vào ngày 23 tháng 9 chính phủ đã cho thông qua kế hoạch chi trả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như tiền phí liên lạc, tiền hỗ trợ tìm việc cho thanh thiếu niên, tiền hỗ trợ nuôi dưỡng trẻ em,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và quỹ hy vọng mới của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ẻ. Tiền trợ cấp lần này chi trả theo phương thức dựa trên thông tin hành chính của chính phủ sau đó gửi tin nhắn thông báo đến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trợ cấp, những người nhận được tin nhắn có thể đăng ký trên online.

Chính phủ chủ trương thực hiện chi trả nhanh nhất có thể tiền trợ cấp theo thứ tự đăng ký. Nếu người nào đăng ký trước thì sẽ nhận được tiền trợ cấp trước tuy nhiên không phải những người đăng ký sau thì sẽ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cho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tuyển dụng đặc biệt.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sớm nhất đó chính là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Dự án số tiền 500,000 won/người được cấp đến 500,000 người là freelancer, lao động đặc biệt được tiến hành thực hiện bắt đầu từ ngày 24. Dự kiến đây là sự giúp ích lớn đến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ười là đối tượng lao động đặc biệt

Chính phủ đã nắm được số liệu về đối tượng hưởng trợ cấp lần 1 nên chỉ cần kiểm tra thêm nhu cầu đăng ký của mọi người là tiền trợ cấp sẽ được chuyển đi. Tại bộ lao động thủ lừ ngày 18 tháng 9 vừa rồi đã cho gửi đi tin nhắn hướng dẫn và hiện tại đến hôm nay vẫn đang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thì không cần qua thẩm tra tư cách và dự kiến trước trung thu sẽ chuyển tiền trợ cấp.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đặc biệt.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freelancer mà không nhận tiền trợ cấp đặc biệt đợt 1 thì dự kiến vào đợt 2 số tiền trợ cấp 1,500,000 won/ người sẽ được cấp cho 200,000 người đăng ký. Đợt đăng ký mới tiền trợ cấp đợt 2 thời gian nhận đăng ký là từ ngày 12 đến 23 tháng 10. Chính phủ sau khi kiểm tra tình hình sút giảm thu nhập thì sẽ chuyển tiền trợ cấp vào tháng 11. Tiền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cho những tầng lớp lao động yếu thấp. thu nhập kém

Tiền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đối tượng là những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 tầng lớp yếu kém số tiền 500,000 won được cấp phát từ ngày 29.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những thanh thiếu niên chưa tìm được việc đã tham gia vào dự án gói hỗ trợ tìm việc thành công hoặc dự án

tiền hỗ trợ hoạt động tìm việc dành cho thanh thiếu niên của năm ngoái hoặc năm nay. Vào ngày 23 đã gửi tin nhắn đến những đối tượng đăng ký đợt 1. Những đối tượng thanh thiếu niên tham gia vào dự án gói hỗ trợ xin việc thành công đến ngày 24 tháng 10 cũng nằm tro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Những người chưa nhận được tiền phụ cấp thúc tiến xin việc của dự án hiện tại thì theo thứ tự đăng ký vị trí thứ 1~2 thì sẽ nhận hồ sơ thì ngày 24~25 tháng 9, đăng ký vị trí thứ 3 thì nhận hồ sơ từ ngày 12~24 tháng 10.

Quỹ hy vọng mới cho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ẻ bị giảm thu nhập <hàn글 기사 위>

Dự án quỹ hy vọng mới hỗ trợ tối đa 2,000,000 won cho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ẻ bị giảm thu nhập đã bắt đầu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vào ngày 25 tháng 9 vừa rồi. Trước trung thu thì nhữ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trợ cấp sẽ nhận được tin nhắn hướng dẫn vào chiều ngày 23, từ ngày 24 là thời gian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ý và ngày 25 sẽ thực hiện chi trả. từ ngày 24 tháng 9 thì có thể đăng ký tại trang web online chuyên dụng. Không cần cái giấy tờ chứng minh khác, chỉ cần số đăng ký kinh doanh và số tài khoản ngân hàng ..v.. chỉ cần nhập những thông tin như thế. Tuy nhiên, để xác nhận thực tế bản thân nên cần chuẩn bị trước số chứng nhận định danh và điện thoại mang tên của bản thân.

Những đối tượng doanh nghiệp bị thiệt hại nặng mà không nằm trong đối tượng được chi trả đợt 1 trước trung thu thì sau trung thu sẽ nhanh chóng tiến hành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안녕카드’ помощник иностранца в Южной Корее

외국인주민의 현명한 금융선택, 외국인 특화 ‘안녕 카드’ 다양한 혜택 놀라워



Жизнь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первое время не только трудна из-за нов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кружения, но также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в финансовом плане. В едь первым делом, находясь за границей, охота изучить культуру этой страны, посетить какие-то известные места, попроб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еду и т.д. Но даже поход по основны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Сеула, включая проезд в транспорте, может сто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овину месячного бюджета. И сократить все эти расходы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уя карту с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услугами ‘안녕카드’ от IBK기업은행. Эта карта была выпущена еще в 2016 году,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не знают о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и и о тех привилегиях, которые она дает.

Жизнь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епременно связана с валютным рынком: переводы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обмен валюты и т.д. Поэтому если существ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экономить на комиссии, 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хочет упустить ее. Так, карта ‘안녕카드’ пом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до 50% на комиссии и при валютном переводе и совершить обмен валют по льготному курсу (достоупно для долларов, евро и йен). Кроме этого, в случае оплаты телевизора, интернета ил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через банкомат IBK기업은행 вы освобождаетесь от комиссии.

То, о чем мы говорили в первой статье -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 Корее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и все охота посетить в первые недели приезда. Покупая билеты с помощью карты ‘안녕카드’, вы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или большие скидки на билеты в различные парки аттракционов,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 страны (не только Сеул, но и другие провин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

ые парки и музеи. С основным списком мест можно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ibk.co.kr.

Используя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такие как автобусы и метрополитен, вы сможете оплачива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проезд и получать скидку до 30 000 вон в месяц. Общая сумма скидка составляет 5%. Поэтому в случа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 стране не стоит волноваться о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ах, а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екрасными видам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Кроме этого, совершая покупки в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мини-маркетах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и др.) на сумму от 10000 до 30000 вон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5%-скидку 2 раза в месяц. Именно такие маленькие магазины - небольшие сокровищницы с вкусной и дешевой едой и напитками, почтовым сервисом и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в любом момент суток. Поэтому очень часто именно в таких мини-маркетах можно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всю атмосферу Азии.

Для более удоб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ты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банком IBK기업은행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инструкции на 10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осно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жно про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ibk.co.kr, либо же обратиться по номеру 1566-2566 (добавочный номер для информаци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571; китайский 572; вьетнамский 574).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множеству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ам в Корее пришлось нелегко. Поиск работы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сложняется, поэтому использую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сэкономить, живя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다른 나라에서의 삶은 새로운 사회 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약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명소를 하이킹하는 것조차도 월 예산의 거

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전문 기업인 IBK(기업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2016년에 발급되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그 존재와 그 혜택을 알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삶은 송금, 환전 등 반드시 외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미션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녕 카드’는 환전 수수료를 최대 50% 절약하고 우대 환율(달러, 유로, 엔화로 사용 가능)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IBK ATM을 통해 TV, 인터넷, 이동 통신비용을 지불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앞에서 필자가 이야기 한 것이 바로 관광지입니다. 한국은 관광지가 셀 수 없이 많고 모두가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카드로 티켓을 구매하면 다양한 놀이공원, 전국 주요 명소, 도립공원, 박물관까지 큰 할인이나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장소 목록은 ibk.co.kr 웹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월 최대 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총액은 5%입니다. 따라서 전국을 여행할 때는 교통비 걱정이 아침의 싱그러운 나라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세요.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편의점(CU, GS25, 세븐 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쇼핑하면 월 2회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점은 맛있고 저렴한 음식과 음료, 택배(우편) 서비스 및 하루 중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작은 보물입니다. 따라서 매우 자주 그러한 미니 마켓에서 아시아의 전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편리한 카드 사용을 위해 IBK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기본 정보는 공식 웹 사이트 ibk.co.kr를 방문하거나 1566-2566 (영어 571, 중국어 572, 베트남어 574)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등에도 외국인 전용카드가 있지만 혜택이 안녕카드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카드사도 외국인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대상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기간 2020. 8.21.(금) ~ 별도 해제시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필수 착용!!

턱스크는 안돼요!!!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마스크 미착용 시 2인 이상 집합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10월 13일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고양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클러스터 1차 연례회의 공동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5일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클러스터 1차 연례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는 고양시, 멕시코의 Huejotzingo 도시,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팀인 UIL(평생학습연구소), IIEP(교육계획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전 세계 회원 도시와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야 2020년, 2021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활동관련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세계 26개 도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람, 공동체, 도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교육, 학습"이라며, "UNESCO GNLC 리더도시

로서 학습도시의 협력체계 강화와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개최된 제 4회 글로벌 학습도시 회의에서 멕시코 Huejotzingo와 함께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야 리더도시로 선정돼,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책무로는 UNESCO GNLC 회원 도시들의 다양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학습도시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고양시정연구원, 한국궤협조사연구소와 함께 평생학습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양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는 11월 2번째 회의에서 고양시 성과관리체계를 발표하고, 해외도시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로 '취약계층' 정보격차 심화

홍정민 의원, 다문화가족 등 정보화교육 급감



코로나19로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족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보화교육의 이수자가 크게 줄어 언택트 사회에서 정보격차 심화가 매우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보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방문·강사과견의 정보화교육 실적이 올해 8월말 현재 총 1만4302명으로 지난 4년간(2016~2019) 평균치인 10만2178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대상 집합교육이 지난해 5만4982명에서 올해 1만281명으로 감소했고 고령층 대상 집합교육도 지난해 1만2256명에서 올해 974명으로 크게 줄었다.

방문교육의 경우 장애인은 지난해 2240명에서 올해 1096건으로, 고령층은 지난해 4134건에서 올해 912건으로 각각 줄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도 지난해 205명에서 올해 117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농어업인 대상 강사과견 또한 지난해 4740건에서 올해 822건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대면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면으로 정보접근성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을 최대한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94. 전세와 월세

대화-아파트 광장에서



안진숙

은숙 : 요즘 갑자기 이사가 늘었어. 어제도 우리 동에서 두 집이 이사를 갔어

민정 :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은숙 : 맞아. 요즘에는 월세를 받는 집이 많아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

메이 :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민정 : 예전에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기 힘들어.

은숙 : 그래서 대부분 전세가 많았는데 요즘은 월세로 내놓는 집이 많아.

민정 :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 분이 좋아서 벌써 5년째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은숙 : 내 동생은 최근에 결혼 때문에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고생이 많아.

민정 :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을 잘 만나야 오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2년마다 이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편해요.

메이 : 민정 씨가 전에 집을 알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정 : 내가 주택 분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3년 뒤 좀 입주 가능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메이 : 좋으시겠어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시겠네요.

은숙 : 요즘 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위치도 좋고 주변 조건도 좋으니까 잘 됐어.

민정 : 하지만 아직 돈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더 열심히 벌고 모아야죠.

은숙 : 민정 씨는 알뜰하고 똑똑하니까 걱정 안 해.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전세'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보증금을 내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찾아가는 것', '월세'는 '상가나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비용을 매월 지불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별도의 추가 비용 지불이 없어 유리하지만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전세와 월세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 상가나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비용을 월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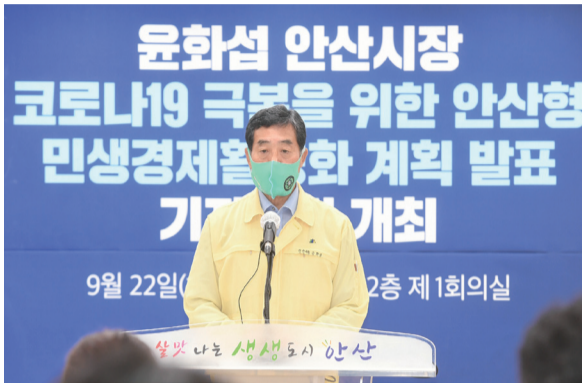
- 원래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 요즘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요.

한국문화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업종 종사자에 60억 투입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해보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 유흥업소, 문화체육시설, 전세버스, 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예술인, 지역아동센터, 그

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 필라테스, 탁구장, 요가 등 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 원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모두 60억 원이 투입된다.

안산시는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이다. 시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산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

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돕기로 했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은 1개 반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 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 장애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평균 봉급 수준인 51만원을 책정해 4개월 치를 주는 방안을 이번 지원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Các bạn đang thắc mắc về luật thuê nhà, luật sư và công ty môi giới nhà đất sẽ tư vấn miễn phí cho các bạn

Tại tỉnh Gyeonggido để tối thiểu hóa vấn đề hỗn loạn thị trường nhà đất sau khi cho thi hành chính sách luật thuê nhà 3 thì tổ chức hiệp hội luật sư trong đó có tổ chức luật sư hàn quốc cùng với hội dân chủ đã liên kết với hiệp hội tổ chức môi giới nhà đất vận hành trung tâm tư vấn về luật nhà đất 3.

Để thực hiện điều này thị trường tỉnh gyeonggido ngài Lee Jae Myeong vào ngày 22 đã đến và kí kết hiệp ước công việc với các lãnh đạo cơ quan liên quan. Theo hiệp ước lần này thì tỉnh Gyeonggido sẽ do xây dựng và vận hành trung tâm tư vấn luật nhà đất và đưa ra những hỗ trợ hành chính cần thiết cho việc thực hiện, Hiệp hội luật sư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do và hiệp hội luật sư khu vực bắc bộ tỉnh gyeonggido sẽ liên kết hỗ trợ tư vấn nhiệt tình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luật thuê nhà đất 3

Luật nhà đất 3 mới được đưa ra cách đây không lâu có những nội dung trọng tâm chính như luật yêu cầu làm mới hợp đồng, luật tăng tiền phí thuê nhà, luật khai báo phí thuê nhà. Quyền xin làm lại mới hợp đồng là quyền cho phép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yêu cầu gia hạn hợp đồng 1 lần với thời hạn là 2 năm dựa trên hợp đồng thuê nhà hiện tại.

Chế độ tăng tiền phí thuê nhà là luật chỉ cho phép chủ cho thuê (chủ nhà) lúc gia hạn tiếp hợp đồng thuê

nhà thì mức phí thuê nhà được phép tăng là không quá 5% so với số tiền hợp đồng thuê nhà hiện tại.

Luật khai báo tiền phí thuê nhà yêu cầu nghĩa vụ hóa nhiệm vụ khai báo với cơ quan có liên quan về các nội dung như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với đương sự, tiền thuê, thời gian thuê, ngày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của hợp đồng ..vv.. trong vòng 30 ngày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Ngay cả người hàn cũng có nhiều người không nắm rõ nội dung này dẫn đến việc bùng nổ câu hỏi thắc mắc nên đối với người ngoại quốc thì đây là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này thì tại tỉnh gyeonggido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tư vấn chuyên môn sẽ cho ổn định chế độ nên hiệp ước lần này đã được tiến cử.

Tại trung tâm tư vấn luật thuê nhà 3 thì hiện nay trung tâm tư vấn chuyên môn luật thuê nhà đất đang được vận hành tại phòng tư vấn luật miễn phí của tỉnh gyeonggido sẽ được mở rộng bằng việc cho xây thêm văn phòng tại 3 nơi như phòng hành chính tỉnh gyeonggido và phòng hành chính tổng hợp khu vực bắc bộ tỉnh gyeonggidoo ..vv..

Tỉnh Gyeonggi do trong thời gian qua đã cùng với hội luật sư và công ty môi giới nhà đã cử 20 chuyên gia hỗ trợ việc tư vấn luật miễn phí. Lần này khi trung tâm tư vấn được mở rộng thêm thì dự kiến sẽ tiến cử thêm

39 chuyên gia tư vấn nâng mức tổng số chuyên gia tư vấn lên 59 người.

Ngài thị trường Lee Jae Myeong đã nói trong lễ ký hiệp ước rằng “ luật bảo hộ người thuê nhà được thay đổi lần này đã gây ra sự hỗn loạn trong thị trường và vấn đề đặt ra là cần thay đổi quan hệ hiểu biết ” và “ bằng cách đưa ra những phán đoán chuyên môn hay những thông tin dự đoán chính xác sẽ ngăn ngừa được mâu thuẫn và giảm thiểu khổ cực nên sẽ rất có ích cho mọi ngườ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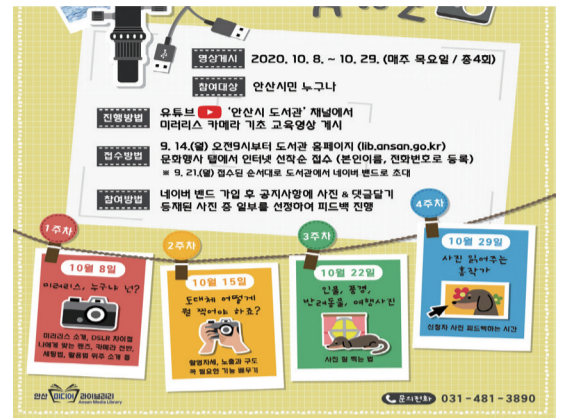
Theo đó ngài thị trường đã phát biểu rằng “ do dịch bệnh corona 19 nê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mệnh lệnh cấm tập trung đông người thì tiền phí thuê nhà bên nào sẽ phải chịu thì những vấn đề như thế này sẽ phải đưa ra những tiêu chuẩn nhất định ” và “ phải tập hợp ý kiến của các bên như chuyên gia luật pháp, người đánh giá cảm tính, bộ phận phụ trách ..vv.. sau đó đưa ra chỉ thị tạo ra một tiêu chuẩn nội bộ”

Hội trường hội luật sư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do ông Lee Jeong Ho phát biểu rằng “ luật thuê nhà 3 lần này có sự xung đột trực tiếp vấn đề quan hệ hiểu biết nên tính hình thành là quan trọng trên hết ” và “ chúng tôi sẽ tư vấn dựa trên nền tảng cả 2 phía đều có thể thông cảm được cho nhau” <hàng글 기사 17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안산 미디어라이브러리, 미디어 걸쳐, 다문화가족도 집에서 즐겨요



의 풍성함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달달송편 나누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지사장,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이진분 의원, 안산시의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박근수 과장 등이 내빈이 참석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명절에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스안전에 대한 리플렛도 함께 제공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라고 밝혔다.

송편을 전달받은 다문화가족 등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맛있는 송편을 선물 받아 너무 좋다”라며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즐겁게 지낼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온라인지원 학습 지원 후원금 전달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14일 KSA 한국표준협회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KSA 한국표준협회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지원 학습을 위한 250만원을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전달된 후원금은 다문화가족이 온라인지원 학습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미디어라이브러리는 대면 수업을 대체한 화상회의, 채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택트 수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영어와 미디어 시설로 특화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는 온택트 문화 프로그램 ‘뉴노멀 프로젝트’ 집에서 즐기는 Media Culture’를 추진하며,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4일부터 4일간 온라인 가을독서교실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두 번째 수업은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사진촬영기초 수업 ‘미러리스 아카데미-흥작가와 미러리스 뿌시기 A to Z’로, 안산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8-29일 사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수업은 총 4차로 진행되며, 미러리스 카메라 작동 기능 설명, 사진촬영의 노출과 구도 및 상황별 사진 촬영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미러리스 아카데미’ 접수는 홈페이지(lib.ansan.go.kr)에 접속한 뒤 문화강좌 코너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031-481-38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한국 머크, 안산 지역다문화아동센터에 2만5000유로 전달

다문화가정 아동,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 준비하며 꿈 이루길!



한국 머크(이하 머크)는 최근 인수합병기념으로 임직원 제안을 통해 조성한 10만유로 규모의 사회공헌

펀드 중 2만5천유로(약 3천410만원)가 김우규 한국 머크 신임대표를 통해 안산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고 24일 밝혔다.

머크는 전 세계에서 제안된 3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 중 최종 선정된 4개 프로젝트에 각각 2만5천유로를 지원해 소외된 이웃들이 디지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우규 대표는 "머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원 활동은 저소득국가 및 소외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과학기술 및 문화교육지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며 "

이번 지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들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이루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웃사랑 안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안산에 위치한 다문화 아동돌봄센터로, 소외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머크 퍼포먼스 머티리얼즈(이전 버숨머트리얼즈 한양기공) 직원 26명은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제4회 고려아리랑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대한고려인협회,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삶의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해”라며 “현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려아리랑은 대중행사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이 시기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하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에도 생존을 위한 싸움을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힘을 합하면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드뉴스, 사진, 웹툰 등 ▲글- 국문 3,000자 내외 자유 형식의 글(피어쓰기 포함)을 대상으로 열린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며 공모는 10월 12일까지다. 공모주제는 제4회 고려아리랑 사이트(http://jamir150.modoo.at) '우리의 이웃, 고려인'에 소개된 도서, 영상, 영화를 감상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는 구글폼(http://bit.ly/2GZ8yGH)으로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너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jamir0513@daum.net/031-493-7056)로 하면 된다.

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살아 숨 쉬는 인천에서 만나는 러시아 CIS 거리, 함박마을 탐방은 신청= https://url.kr/eglGU9, 문의= 031-493-7056

#경기도민과 고려인 동포 희망열차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 경기도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인식개선 사업으로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삶, 문화를 만나는 경기도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탐승하는 희망열차가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희망열차 중 ▲식당열차는 Talk 콘서트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온라인 가능), ‘찾아가는 사진전(선택 가능)’이 마련된다. 탐승객에게는 고려인 어머니들이 만든 도시락, 고려인 청소년 F4 바리스타가 만든 음료, 도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는 내일>을 선물로 준다. ▲매점 열차는 Talk 콘서트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온라인 가능)이 운영되며, 탐승객에게는 고려인 어머니들이 만든 빵 또는 과자, 고려인 청소년 F4 바리스타가 만든 음료, 도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는 내일>을 선물로 준다. 신청= https://bit.ly/3LOyWTz 문의= 031-493-7053

이 밖에도 제4회 고려인 아리랑 <고려인 콩쿠르> BESTAR 2020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댄스, 노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김영의 기자

#슬로건 인증샷 올리면 기념품 증정

제4회 고려아리랑은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친구인 고려인을 만날 수 있는 2020년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행사도 마련한다.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제4회 고려아리랑 슬로건 인증샷’은 10월 12일까지 인증샷 올리면 선물 준다. 참여 링크(https://bit.ly/3mqTPEu)fh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 또는 제4회 고려아리랑 슬로건 인증샷을 찍고 해쉬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면 100명에게 기념품을 준다

#‘영상·이미지·글’ 콘텐츠 공모대회

제4회 고려아리랑 콘텐츠 공모대회는 ▲영상- 스토리텔링, 스냅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이미지- 포스터, 카

#고려인 동포와 함께 사는 마을 탐방

고려인 동포와 함께 사는 안산 땃골마을과 인천 함박마을 탐방이 진행된다.

안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많은 외국인 동포들이 주민으로 함께 살고 있다. 러시아 및 CIS 국적의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안산 땃골마을 탐방은 10월 12일~31일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에서 이뤄진다.

탐방내용은 고려인 청소년이 해설하는 고려인 이주 역사 전시관 관람, 고려인 어머니가 만들어 준 고려인 음식 시식과 이야기, 다 함께 동네 한바퀴 ‘땃골마을 둘러보기’ 등이다. 단체 신청방으며 참가 인원은 5~10명으로 희망날짜를 협의하면 된다. 신청= https://bit.ly/2FQc59r, 문의 = 031-493-7056

인천 함박마을은 인천의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로 5천여 명의 고려인과 주민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전국의 고려인 동포들은 지난 2017년 함께 모여 개최한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을 시작으로 해마다 9월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항일 대한독립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문화대중행사로 2018년 ‘미래세대와 함께 부르는 제2회 고려아리랑’ 2019년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용기 제3회 고려아리랑’이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대중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고려인 선조들이 보여 주셨던 개척과 불굴의 의지, 고난 극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4회 고려아리랑 개최와 관련 지난 9월 9일 대한고려인협회 노송달 회장은

CONTENT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제4회 고려아리랑 콘텐츠 공모대회

공모부문

- 1 영상
스토리텔링, 스냅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 2 이미지
포스터, 카드뉴스, 사진, 웹툰 등
- 3 글
국문 3,000자 내외 자유형식의 글(피어쓰기 포함)

공모자격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공모일정 2020.09.15 ~ 10. 12

공모주제 제4회 고려아리랑 사이트
https://jamir150.modoo.at
'우리의 이웃, 고려인'에 소개된 도서, 영상, 영화를 감상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

접수방법 https://bit.ly/2GZ8yGH
구글폼으로 접수

문의 (사)너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jamir0513@daum.net
031-493-7056

대한고려인협회, (사)너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인천고려인문화원

고려인 동포와 함께 이주하며 사는 마을

BESTAR 2020

2020년 10월 4일(일) 17:00~19:00

공주: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문의: 031-493-7056

안산 땃골마을

기간: 2020.10.12 ~ 10.31
주소: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땃골마을 탐방구 좌측 460 27

단체 신청: 참가 인원 5~10명으로 희망날짜 협의

문의: https://bit.ly/2FQc59r (031-493-7056)

희망열차

경기도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탐승하는 Special EVENT

2020.09.15 ~ 2020.10.31

TICKET **식당 열차**
7월 콘서트를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 '여러인 가능' 참가자 사진전 '내일 가는 길' (합승객 GIFT)
고려인 어머니들이 만든 빵 도시락, 고려인 청소년 F4 바리스타가 만든 음료, 도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는 내일>

TICKET **매점 열차**
7월 콘서트를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 '여러인 가능' (합승객 GIFT)
고려인 어머니들이 만든 빵 도시락, 고려인 청소년 F4 바리스타가 만든 음료, 도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는 내일>

단체 신청방이며 참가 인원은 5~10명으로 희망날짜를 협의하면 된다. 신청= https://bit.ly/2FQc59r, 문의 = 031-493-7056

인천 함박마을

희망열차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마을

기간: 2020.10.13(화)
주소: 인천고려인문화원 탐방구 좌측 460 27, 28

단체 신청: 참가 인원 5~10명으로 희망날짜 협의

문의: https://bit.ly/2FQc59r (031-493-7056)

QUIZ 빈칸 퀴즈

아리랑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래 참여링크로 제출해 주세요.

기간: 2020. 9. 9. ~ 10.12.
참여링크: https://bit.ly/3bAUEWx
선물: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마스크 또는 티셔츠를 드립니다.

힌트 보기

QUIZ Игра вставь слово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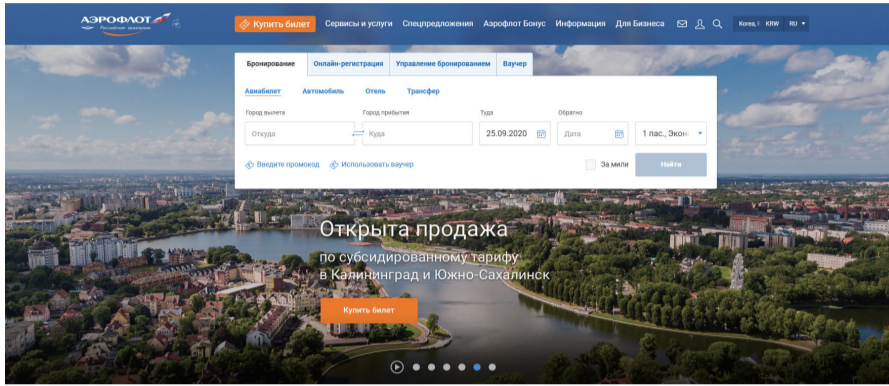
Угадайте пропущенное слово, испытайте удачу по ссылке ниже!

Сроки: С 9 сентября - до 12 октября 2020 г.
Ссылка для участия: https://bit.ly/3bAUEWx
Призы: Мы разыграем многократные маски из хлопка и футболки для 100 участников

Используйте подсказки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ление авиасообщений

러시아와 한국 사이 항공편 재개, 단기 방문자 및 관광 목적 방문은 여전히 제한



Хоть об окончании пандемии говорить еще рано, но появились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как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так и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Еще с конца марта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Росси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из-за плох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о всем мире, связанной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В этот период действовал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вывозные рейсы для туристов и граждан, желающих покинуть страны. Первое время мы были очень расстроены, ведь у нас были планы посети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России. Но нич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делать, как ждать новых вестей.

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что с 27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Россия на взаимной основе возобновляет авиарейс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роме этого снимается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запрет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в РФ, который действовал на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Однако хоть запрет и был снят, существует риск резкого повыш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заболевших COVID-19, поэтому граждане обеих стран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страну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визы д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целей. Въезд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или же п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изе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справку об отсутствии симптомо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а по прилете в Южную Корею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двухнедельную изоляцию. Те же самые условия стоят и к гражданам Кореи, собирающимся посетить РФ.

Авиапереле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ся раз в неделю росси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ей Аэрофлот по рейсу Москва-Сеул.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вывозные рейсы будут прекращены.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оп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тоит остро для больше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планеты, но особенно часто его задают именно иностранцы. Ведь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иде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даже доставка посылок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н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а всего пару недель. Поэтому такие новости не могут не радовать русски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Хотя до сих пор и существуют визо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уже большой шаг к тому,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авиасообщения окончательно возобновятся в привычном режиме.

대유행 종식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러시아와 한국 국민 모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된 전 세계의 방역 노력으로 3월 말부터 러시아와 다른 국가 간의 정기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항공편은 출국을 희망하는 고객과 시민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러시아의 친척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는 2020년 9월 27일부터 한국과의 상호 기준으로 항공편을 재개 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유효했던 러시아 연방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어 양국 시

민은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어야만 국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제도 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출국 48시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 유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스크바-서울 항공편은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일주일에 한 번 운항합니다. 동시에 특별항공편은 종료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행 재개 문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에게 심각한 문제였고 특히 궁금했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까.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며 해외배송까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소식은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비자 제한이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항공 서비스가 마침내 평소와 같이 재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러시아 측이 모스크바-인천 노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자는 제안서를 한국 측에 보냈고, 최근 한국 측이 9월 말부터 재개하자고 화답하면서 운항 재개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 이같은 추세가 대규모 재확산으로 변질 경우 항공 운항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9월 4일 이후 18일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일 기준 110만3399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질병관리본부
KCDC

COVID-19 Response Guidelines, 9th Edition, Appendix 5: '10 Guidelines for Teens with Symptoms'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please keep **People 10 guidelines**

cough

cough

***Major symptoms of COVID-19**
fever (37.5°C/99.5°F or higher), cough, difficulty breathing, chills, muscle aches, sore throat, loss of taste and smell, and pneumonia

- 1 **Do not go to school or work and avoid going out; stay home and rest.**
- 2 **When making medical appointments, notify your healthcare provider that you are showing clinical symptoms of COVID-19.**
- 3 **Monitor if clinical symptoms persist or get worse.**
- 4 **If fever persists or symptoms worsen,**
 - ① **Dial the KCDC Call Center at (1333, local area code + 120) or your local health center for inquiries**
 - ② **Visit a screening clinic and have a health care provider look at you**

* When using an ambulance by dialing 119, notify the operator that you show clinical symptoms of COVID-19
- 5 **Use a personal vehicle and wear a facemask when visiting a healthcare facility.**
- 6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 7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or a tissue when coughing or sneezing.**
- 8 **Isolate your living space. Always maintain a distance of 2m from family or roommates you live with.**
- 9 **Do not share your personal items with others.**
Use separate towels, tableware, and cellphones.
- 10 **Clean and disinfect frequently touched surfaces daily.**

"Together, we stand resolute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2020.07. 13.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 나선다

안산시, 특구발전 시책 추진 위한 기초자료로 쓸 것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대상으로 상권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9월 2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상권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2주 미뤄진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중국인 3명, 러시아에서 귀환한 한국인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은 상가의 업종과 상호명, 고용인원, 대표자국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다문화 체험 명소로, 주말이면 은행 송금, 식료품 구입 및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주민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다.

상권조사는 2009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천356개소 다문화마을특구 내 상가를 전수조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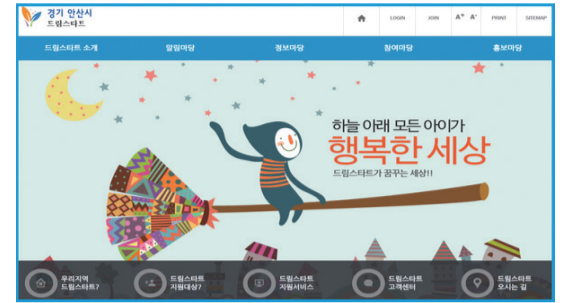
조사를 통해 외국계 업소분포, 상권변화 등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며, 특구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상권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선도적인 다문화마을특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드림스타트, 연우리아이연구소 ‘찾아가는 미술치료’ 진행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주의산만,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미술치료’를 ‘연우리아이연구소’ 심리치료기관과 협약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6가정이며, 아동당 1회 50분씩, 총 7회의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찾아가는 미술치료’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치료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친숙한 환경에서 아동과 양육자에게 1:1 상담을 진행하고 각 가정에 맞는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끌어내고 가정의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просы о 3-м Законе об аренде, юрист или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й агент по операциям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проконсультируют бесплатно

Чтобы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путаницы на рынке жилья из-з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в Кёнги действует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адвокатов, ассоциацией юрист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агентов недвижимости.

С этой целью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 Ли Джэ Мён 22-го числа подписал дел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й в офисе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

Согласно этому соглашению, Кёнги создаст и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по аренде и оказыв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Центральн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ллегия адвокатов Кёнги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ллегия адвокатов Северного Кёнг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ключая 3-й Закон об аренде.

Третий Закон об аренде, который был введен недавно,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в системе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продление контракта аренды жилья как

с ежемесячной оплатой так и аренды под залог.

Система запроса на продление контракта позволит арендатору (новому владельцу) право запросить продление существующего контракта на аренду под залог ил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у один раз на два года.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не позволяет арендодателю (домовладелец) при продлении договора на аренду под залог, или с ежемесячной оплатой, увеличить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более чем на 5% от суммы суще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Согласно системе заявки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арендного договор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му лицу, в течении 30 дней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жилья, необходимо яви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ведомство и сообщить детали контракта, такие как сумму депозита,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период аренды,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ромежуточный платеж, дата платежа баланса и т. д.

По мере реализации пересмотрен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аренды жилья и пересмотренного закона об отчетах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 т. д. количество запросов на консультации м

жду арендаторами и арендодателями быстр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понимания нововведения даже от корейцев поступае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а что говорить об иностранцах, путаница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будет еще больш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ёнги продвигает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здать новую систем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ёнги расшир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в целях установления новой системы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мся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в тре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Открыты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Кёнги-до и Северный офис Кёнги-до, за счет расшир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 аренде,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в ведении Бюро бесплат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ёнги-до. Центр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елефону.

По Кёнги было приглашено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20 юристов и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агентов по недвижимост

и в качестве бесплат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С расширением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было назначено 39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ни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до 59.

Губернатор Ли Джэ Мён на церемонии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тметил: «Поскольку Закон о защите аренды жилья пересматривается, в этой сфере возникает путаница и недопонимание и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интересы. Предоставляя т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оценивая ситуации, Вы будете очень полезны в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конфликтов и их плавном разрешении».

Губернатор Ли продолжил: «Есть споры о том, кто будет платить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запрета на коллективное посещение из-за Согона 19.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так же не обходим определенный стандарт.» И в добавок запросил: "Юридические эксперты и оценщики, обсудите мн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отдела определите и предоставьте внутренние стандарты". <한글기사 17면>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माइड बुक

सामाजिक सुरक्षा प्रणाली

01 राष्ट्रिय आधारभूत जीवनयापन सुरक्षा

आधारभूत जीवन सुनिश्चित गर्नका लागि न्यून आय भएका नागरिकहरूलाई आधारभूत जीवनयापनका लागि खर्च, घर खर्च अनुदान, शिक्षाका लागि अनुदान (शिक्षा मन्त्रालय) तथा स्वास्थ्य सहयोग सरकारले प्रदान गर्दछ। मजदुरी गर्न सक्नेलाई व्यवस्थित तवरले आफुलाई स्वाभलम्बी बनाउने सेवा दिएर स्वाभलम्बी र आत्मनिर्भर बनाउने प्रणालीको निती बनाउने क्रममा विदेशी बासिन्दाले पनि सम्बन्धित अध्यादेशमा आधारित सुविधाहरू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छन्।

1. मापदण्ड

निम्न शर्तहरू पूरा गर्ने विदेशी बासिन्दा भइकन ① आय विवरणको मापदण्ड ② आफूमा भर पर्ने आश्रित व्यक्तिको मापदण्ड पुरा भएमा आधारभूत जीवनयापन सुरक्षा सहयोगको निम्ति रकम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छ।

- कोरियामा दर्ता भई बसोबास गरेको, कोरियन नागरिकसँग विवाह भएको र आफु वा जोडी गभंवती भएमा, कोरियन बच्चा हुर्काउन लागेको खण्डमा (सम्बन्ध विच्छेद भएको वा आफ्नो पति, पत्नी गुमाएको सन्दर्भमा पनि लागू)
- विदेशी नागरिकले आफ्नो पति वा पत्नीका कोरियन बुवा आमा वा हजुरबुवा, हजुरआमासँग बसोबास गरेको खण्ड बाहेक अन्य विदेशी नागरिक आधारभूत सुरक्षा सहायताको लागि योग्य हुने छैनन्। यदि विदेशीको परिवारमा कुनै पनि कोरियन नागरिक छ भने कोरियन आधारभूत जीवनयापन सुरक्षा सहायता योग्य हुन सक्छ। यस सन्दर्भमा आय विवरणको मापदण्ड, आफूमा आश्रित व्यक्तिको मापदण्ड सारा पुरा गर्नु पर्नेछ।

- ① घर परिवारको आय (मुल्यांकनमा परेको आय+ सम्पत्तिले थप्ने आय) जयाला अनुसार पाउने व्यक्ति निर्णय गर्ने मापदण्ड (मध्यवर्गको आय निश्चित प्रतिशत+) तल छ।
 - (2018 साल) जीविकाका लागि अनुदान 30%, स्वास्थ्य उपचारका लागि अनुदान 40%, घर खर्चको लागि अनुदान 43%, शैक्षिक अनुदान 50%
- ② आफूमा आश्रित कुनै पनि व्यक्ति नभएका (प्रत्यक्ष परिवारका सदस्य र पति वा पत्नी), आश्रित भएपनि आफ्नो जीविकोपार्जन गर्न नसक्ने यस्तो सहायता प्राप्त गर्न नसक्ने व्यक्ति
 - अनुकूल खर्च (जुलाई, 2015)को संसोधनअनुसार आश्रित व्यक्तिको मानकमा आधारित शिक्षा खर्च रध्द

पद

① 2018 सालको मध्यम आय (एकाइ : वन)

प्रकार	1 जनाको परिवार	2 जनाको परिवार	3 जनाको परिवार	4 जनाको परिवार	5 जनाको परिवार	6 जनाको परिवार
रकम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8जना भन्दा बढी भएको परिवारलाई 7जनाको परिवारको मध्यवर्ग आयबाट 6जनाको परिवारको मध्यवर्ग आयको फरकलाई 7जनाको परिवारको मध्यवर्ग आयमा जोडेर दिइन्छ।

② 2018 सालमा सरकारी अनुदान लाभकर्ता छनौटको मापदण्ड (सामान्य मध्यस्तरको आय%) (एकाइ : वन)

परिवार संख्या	1 जना	3 जना	3 जना	4 जना	5 जना	6 जना
जिविकोपार्जन भत्ता (मध्यस्तर आय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स्वास्थ्य भत्ता (मध्यस्तर आय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स्वास्थ्य भत्ता (मध्यस्तर आय 40%)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शैक्षिक खर्च अनुदान (मध्यस्तर आय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 अनुदानको किसिम

(1) जीवनयापन अनुदान

- विवरण: लुगाफाटा, खाना तथा इन्धनको निम्ति दिइने आर्थिक सहयोग, दैनिक जिवनमा चाहिने रकम, सामान दिने
- रकम: न्यूनजिविकाअनुदानस्तर(आधार- मध्यवर्ग आयको 30%) बाट घरको तोकिएको आय घटाएको रकम

जिविका अनुदान: (सामान्य जीवनयापन खर्च) - (प्राप्य योग्यता आधार)- तोकिएको आय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माइड बुक

सामाजिक सुरक्षा प्रणाली

(2) बासस्थान अनुदान

- विवरण: बसोबास गर्ने ठाउँ, बासको किसिम, परिवारको आकार आदिको आधारमा स्थिर बासको लागि चाहिने भाडा तथा मर्मतसम्भार खर्च उपलब्ध
- अनुदान रकम: घर भाडामा लिएका परिवारलाई घर मालिकले लिनुपर्ने वास्तविक रकमको मापदण्ड अनुसार क्षेत्रिय रुपमा चलिआएको भाडादर परिवारको सदस्य संख्या तथा आम्दानीको स्तर अनुसार अनुदान प्रदान गरिन्छ। आफ्नै स्वामित्वमा रहेको घरमा बस्नेहरूको लागि भने घर मर्मत तथा सम्भार गर्ने आवश्यकता अनुसारको सहयोग रकम उपलब्ध गराइन्छ।

सन्दर्भ

① घरभाडामा लिने परिवारलाई दिइने न्यूनतम अनुदान रकमको मापदण्ड (सन् 2018 अनुसार)

(एकाइ: दशहजार/वन)

विषय	1 जना (सडल)	2 जना (रयडगी*इन्छन)	3 जना (महानगर*सेजोड)	4 जना (अन्य क्षेत्र)
1 जना	21.3	18.7	15.3	14.0
2 जना	24.5	21.0	16.6	15.2
3 जना	29.0	25.4	19.8	18.4
4 जना	33.5	29.7	23.1	20.8
5 जना	34.6	30.8	24.2	21.8
6 जना	40.3	36.4	27.6	25.2

※ परिवारमा 7 जना भन्दा बढी भए, 2जना बढ्दै जादा भाडा 10% बढ्छ

② आफ्नै घरमा बस्नेहरूको लागि दिइने न्यूनतम अनुदान रकमको मापदण्ड (सन् 2018 अनुसार)

(एकाइ : वन)

विषय	हल्का मर्मत	मध्यम मर्मत	ठूलो मर्मत
मर्मत खर्च	3,780,000 वन	7,020,000 वन	10,260,000 वन
मर्मत गर्ने अवधि	3 वर्ष	5 वर्ष	7 वर्ष

※ पारिवारिक आम्दानी जीविकोपार्जनको लागि प्राप्त अनुदान रकमभन्दा कम भएमा कुल मर्मत खर्चको 100%, जिविकोपार्जन अनुदानभन्दा बढी भएमा वा सरकारले तोकेको मध्यम आयको 35% भन्दाकम भएमा कुल मर्मत खर्चको 90% र मध्य आयको 35% देखि 43% भन्दा कम भएमा मर्मत खर्चको 80% रकम प्रदान गरिनेछ। जमीनको बाटो मार्फत आवत जावत गर्न नसकिने क्षेत्र (जेजु प्रान्त बाहेक)मा माथिको मर्मत खर्चमा 10% थप गरिनेछ।

(3) शैक्षिक अनुदान

- ① विवरण: भर्नाशुल्क, शिक्षणशुल्क, पाठ्यपुस्तककोखर्च, शैक्षिक सामग्री तथा स्टेसनरी खर्च

लाभग्राही समूह	अनुदानको शिर्षक	सहयोग रकम (2018 साल)
प्राथमिक तहका विधार्थी	विषय वस्तुका पाठ्यपुस्तक	66,000 वन
निम्न माध्यमित तथा माध्यमिक तहका विधार्थी		105,000 वन
प्राथमिक तहका विधार्थी	शैक्षिक सामग्री खर्च	50,000 वन
निम्न माध्यमित तथा माध्यमिक तहका विधार्थी		57,000 वन
माध्यमिक तहका विधार्थी	पाठ्यपुस्तक खर्च	सम्बन्धित कक्षाको नियमित विषयको सबै पाठ्यपुस्तक
	भर्ना शुल्क /ट्युशन शुल्क	वर्ष एवं कक्षा अनुसार विधालयले सूचित गरेको रकम सबै

(4) सुत्केरी अनुदान

- सहायता प्राप्त गरिरहेको व्यक्तिको बच्चा जन्मदा(बच्चा जन्मनेवाला भएमा समेत) 1बच्चाको 600,000वन (जुमल्याहा जन्मेमा 1,200,000 वन प्रदान) नगद प्राप्त गर्नेछन्।

(5) काजकिरिया अनुदान

- सहायता प्राप्त गर्नेको मृत्यु भएमा प्रति व्यक्ति 750,000 वन दिने

3.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 राष्ट्रिय आधारभूत जीवनयापन सुरक्षाको निम्ति आवेदन दिन यउप, म्यन अथवा दोडको कार्यालयमा जानुहोस् र सामाजिक कल्याण सेवा र अनुदान दिने आवेदन भरेर दिनुहोस्।
- आवेदन दिएपछि सरकारी कर्मचारीले तपाईंको योग्यताको मुल्यांकन गर्नेछन
- तपाईंको योग्यताको बारेमा 30 दिन भित्र सूचित गरिने छ, ठीलोमा पनि 60 दिन भित्र सूचित गरिनेछ।



"외국인. 이주민의 다양한 염원 위해 일할 것"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문화 위원장은 상설 위원장으로서 전국 256개 지역 위원회 다문화위원회를 관장하고, 중앙당의 당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고 의원은 외국인, 다문화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동안 지역 다문화 위원회 활동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주 및 다문화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문화가정이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회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다문화 위원장으로서 우선 외국인, 이주민들의 염원, 삶의 안정, 자녀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산업인력의 보완,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인 당원 확대 사업을 위해서도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중, 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증언안을 제출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나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돌봄지원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저연령 아동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 상황만 고려한 것으로 돌봄은 시간적, 정신적, 가정돌봄에 따른 소비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증언안에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정 소요 약 5,900억원에 대한 내역이 담겼다.

김영의 기자

민간 공유전자전거와 함께 '카카오 T 바이크'가 달려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9월 23일부터 민간 공유전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 500대를 투입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00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는 1천 대로 늘릴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승 행사를 통하여, 전기 자전거의 작동 및 편의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 요금은 기본 1천 500원(15분 기준, 보험료 포함)이고, 추가 1분당 100원이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나 일련번호로 인증한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 잠금장치를 설정하면 요금이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자동 결제된다.

김영의 기자

Помощь для послеродового ухода; с октября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семья, не зависимо от срока в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остоянным местом ж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выплатят по 500.000 вон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за каждого рождённого ребёнка.

С 15 октября по Кёнгидо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ён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 500.000 вон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ериода проживания.

С этой целью 15 июля было пересмотре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расходов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в Кёнгидо» и был удалён пункт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 Кёнгидо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или более», который был предыдущим критерием отбора.

В част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вным законом о социаль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бсуждению изменения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а 9-го чис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изн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поддержки всех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и путем облегчения условий на период прожив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полное «всеобщее бесплатное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е выплату по 500.000 вон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без каких-либо условий, для всех семей, рожающих в Кёнги-до.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быть отец или мать ▲ Регистрация резидента в Кёнги-до на дату рожд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 Резиденты должны проживать в Кёнги-до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ки ▲ Дата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2 месяцев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ки ▲ Регистрация рождения должна быть в Кёнги-до, и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должен иметь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ам и постоянным жителя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о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Если оба супруга являются иностранцами или трудно подтвердить супруга

(у),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тату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F-5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проживания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 Проживание в Кёнгидо на дату рождения и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Дата рождения младенца не более 12 месяцев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должна быть соблюдена.

Метод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посетить управление района/ области /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осле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цедур таких как провер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татуса выплаты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карту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арта или мобильно).

В частности, при многоплодии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умма 5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рождённого ребёнка; которыми можно оплатить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матерей и новорожденных; данные выплаты параллельно возможны с выплатами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фонда послеродового ухода - это проект, продвигаемый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 на седьмых гражданских выборах, в целях облегч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бремя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и, защитить здоровье матерей и новорожденных и преодолеть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1 янва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к концу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выплати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8,9 миллиарда вон примерно 120.000 семьям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сказал: «Это расширение проекта помощи послеродового ухода является меро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Кёнгидо благоприятно для род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екту помощь получат примерно на 9.000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и больше чем раньше.

〈한글 기사 1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ервая в стран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школа 첫 다문화통합국제학교

첫 다문화 초중고 통합학교, 시흥에 들어선다 “한국어·모국어·영어 함께 배워 기대감”



Наверное многи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хотелось, чтобы ребенок свободно общался на двух языках: корейский и родной язык родителя. Однак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дет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чинает преобладать над другими из-за социума,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ребенок.

Как, например, русские слов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рейскими достаточно длинные, и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дет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используют последние как способ общения. В школе в связи с экзаменами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занятиями времени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языку обычно не стоит в приоритете.

Поэтому со временем ребенок начин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единственный язык для общения. Еще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когда я узнала, что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Школа будущего, я была безумно рад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тоял план построить школу как минимум к 2022-2023 году. Однако сегодня, 16 марта, проверяющий из комите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이재정 объявил об открытии школы для учеников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помню, дет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азносторон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звивая два языка. Шк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также разделена на 3 этапа: начальная, средняя и старшая. Поэтому школ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Концепцией школы является комбинация глоба

льного и локального, поэтому носит название ‘군서글로벌학교’ 혹은 ‘군서미래국제학교’. Ч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 студент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аз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кже было добавлено, что соотношение студентов из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будет в соотношении 5 к 5. В школе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родной и другие язык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дети из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и философию на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Ч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сильным достоинством.

По словам 이재정,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вои двери откроет средняя школа,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в общем из 6 классов: китайский, русский, корейский и др. Окончанием постройки старшей школ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 2022 год, 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а 2024.

Набор в школу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жителе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городов Шихын и Ансан, где больше всего сосредоточено иностранцев, пут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и подробного собеседован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и помощь не тольк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бракам, но и детям из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а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ую среду, при этом не забыв историю своей родины, не стоит так остро, как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А마도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두 가지 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아이가 속한 사회 때문에 한국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세하게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단어는 한국어에 비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과 방과 후 학원 때문에 추가 언어 학습 시간이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는 의사소통의 유일한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초에 경기도에 미래국제통합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최소한 2022-2023년까지 학교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 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3월 국내 최초 다문화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목적 교육을 받으면서 두 가지 언어를 개발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학교 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3단계를 하나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통합형 다문화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의 개념은 글로벌과 로컬의 조합이므로 ‘군서글로벌학교’ 혹은 ‘군서미래국제학교’라고 불립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외국어로만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국인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5대5라고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 영어, 모국어 및 기타 언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모국어로 역사, 문화, 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에 따르면 내년 3월에 중등학교가 개교하며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고등학교 준공은 2022년, 초등학교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다문화 도시 시흥과 안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모집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국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한국 환경과 통합하는 문제는 몇 년 전과 같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수준별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국 관련 교육에서 자긍심과 자기 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라며 “일반 학생들은 체계적인 맞춤 언어교육으로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리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시흥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 추진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시흥시(시장 임병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1차 아동돌

봄쿠폰과 달리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20년 9월 기준)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미취학 아동 30,990명에게 1인당 20만원, 총 국비 62여억 원 규모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

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детям 외국인주민을 위한 누리과정

내외국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어린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필요

Возможно,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воспита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очень часто влетает в копеечку.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в финансовом плане труд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 в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одителям. В Корее также суще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на воспитание или уход за ребенком.

Так, в 2020 году продолж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ид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од названием “누리과정”,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етям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5 лет (от 2014 по начало 2017 годов ро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лата оказывается за обуче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ли частном детском саду.

В случае посещ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бо 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яслей (유치원)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60 000 вон, частных яслей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어린이집)-240 000 вон. В случае если семья является малоимущей, то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увеличится до 100 000 вон к основной помощ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возможн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айонном 주민센터, либо же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online.bokjiro.go.kr.

Ранее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емьи, где хотя бы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ребенка - граж

данин Кореи. Однако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также платят налоги со своего дохода. Поэтому встал вопрос о внедрении да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в иностранные семь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누리과정”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следующих трех город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Шихын (시흥시), Ансан (안산시) и Пхучхон (부천시).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и расходов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бщих программ обучения и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по все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инансового состояния города и региона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может различаться.

Вве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о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в отношении мест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даст основа для созд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и стабильной среды для ухода и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아마도 모든 국가에게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은 매우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재정적인 지원을 도입합니다. 한국 또한 특별한 육아 또는 육아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만 3~5세(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기준) 아동에게 제공되는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가 제공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60,000원,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4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수급 가족인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이 10만원이 추가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프로그램은 부모 중 한 명이 이상이 한국 시민인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을 외국인 가정에도 도입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누리 과정”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등 3개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일반 교육 및 보육 시행을 위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 및 지방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도입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유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임대차3법 공금증,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관련된 기관장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얼마전 도입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둔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국인들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문의가 쏟아지는데 외국인주민들의 혼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는 전문상담을 확대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해 경기도 열린 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에 설치된다.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 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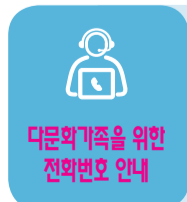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

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31면, 베트남어 8면, 러시아어 12면> 이지은 기자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 행복한 육아, 부부가 함께해요

시흥시,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 온라인 방식 운영



어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의 찾아가는 가족학교를 이용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는 육아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육아를 엄마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시도와 상관없이 실행에서는 과도기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부부 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가족학교를 통해 현명한 자녀 육

아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를 준비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각 가정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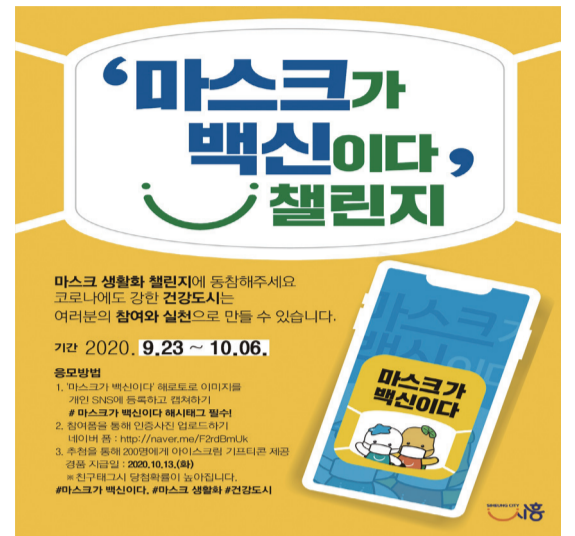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수용하고 공감하는 부부와 부모, 자녀 대화법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남은 시간 구해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행복한 가족선언문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시범운영 대상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줌(ZOOM)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활동키트가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계획을 변경해 운영되지만,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각 가정에서 무리 없이 활동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참여하는 가족들이 이 교육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뿐 아니라,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마스크가 백신이다'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진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3일부터 2주간 '마스크가 백신이다'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마스크 쓰기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준비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이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개인 SNS에 '마스크가 백신이다'의 해로, 토로 이미지를 등록한 후 인증샷을 참여폼(<http://naver.me/F2rdBmUk>)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벤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김영의 기자



始兴国际青少年学校

Siheung International Youth School

招生!

Recruitment

招生对象 14-19岁校外中途入韩青少年
Who Can Apply 14 ~ 19 years old middle school youth Immigrant

招生时间 随时招生
Recruitment Period Continous

教育费用 免费(教材费和中餐自负)
Education fee Free (Except lunch and textbook)

教育日期 2020.2 ~ 2020.12 (每周, 星期一~星期五 09:00~15:00)
Training date 2020.2 to 2020.12 (Monday to Friday 09:00 to 15:00)

教育内容 韩语教育以外, 还有前途咨询, 体育, 英语等(按等级分班)
Educational content career counseling, English, history, cooking, art, physical education, etc. (Half composition by level)

体验活动 韩国文化体验及前途·职业体验
Experience Korean culture experience and career experience

入学申请 访问学校(家长同行) ▶ 入学咨询 ▶ 填写入学申请书
Admission procedure school visit (With Guardian) ▶ admission counseling ▶ Application Form completion

入学资料 外国人登录证, 护照, 标准照片1张(学生)
Admission Document Alien Registration Card, Passport, Business Card (Student)

入学咨询 始兴市外国人福利中心(始兴国际青少年学校) ☎ 070-4047-3999(中国语)
Admission Siheung Foreign Welfare Center (Siheung International Youth School) ☎ 031-434-0413



地址
 京畿道始兴市工团一环路 259号街5 (正往洞) 3楼

Directions
 3rd floor, 5, Gongdan 1-daero 259beon-gil, Siheung-si, Gyeonggi-do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비대면 화상 상담안내

<가족상담 관련 공지>

본 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화상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힘든 분
2. 전문상담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될 때
3. 직장이나 육아,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
4. 그 외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기가 부담스러울 때



시흥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การโอนเงิน

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บัญชีอื่นภายในธนาคารเดียวกัน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เสี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แต่กรณีที่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บัญชีอื่นต่างธนาคารต้องเสี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ซึ่งอัตรา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จากเว็บไซต์ของธนาคาร นอกจากนี้ทุกครั้งที่ทำ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ก็จะมียอดเงิน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สดงให้ที่บนหน้าจอทำให้คุณ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ได้ก่อนตัดสินใจโอนเงิน

(4)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은행에서 같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는 수수료가 없지만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고,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화면에 나오니 확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ภาพหน้าจอขณะป้อนข้อมูลเพื่อฝาก/ถอนเงิน
ข้อมูลบัญชี และ เลขบัญชี



ภาพหน้าจอขณะป้อนรหัสการโอน และ รหัส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รหัส OTP และ รหัส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การโอนเงิน
계좌이체**

เข้าสู่เว็บไซต์ธนาคาร
은행 홈페이지 접속

เข้าสู่เว็บไซต์ธนาคารผ่านเครือข่ายอินเทอร์เน็ต
인터넷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ล็อกอินโดยใช้ใบรับรองตัวบุคคล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공인인증서 로그인

เลือกบัตรที่ได้จัดเก็บไฟล์ใบรับรองเอาไว้ เครื่องแล้วป้อนรหัสใบรับรอง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เลือกเมนูโอนเงินตรงจากนั้น
ป้อนข้อมูลการโอนเงิน
(โอนเงินออก)
계좌이체 버튼 선택 후,
이체(출금)정보 및
입금정보 입력

ข้อมูลการโอนเงิน(โอนเงินออก) คือ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ผู้ส่งเงิน ส่วนข้อมูลการฝากเงินคือ 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ผู้รับเงิน ได้แก่ ข้อมูลจำนวนเงิน, ธนาคารที่รับโอน, เลขที่บัญชีที่รับโอน
이체(출금)정보는 돈을 보낼 사람에 대한 정보이고, 입금정보는 돈을 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체 금액, 입금은행, 입금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ป้อนรหัสที่ส่งตรงตรวจสอบ
ข้อมูลการโอนเงิน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
이체정보 확인 후,
각종 비밀번호 입력

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การโอนเงินที่แสดงบนหน้าจอเมื่อเห็นว่าข้อมูลถูกต้องแล้วให้ใส่รหัสโอนเงินและรหัสบัต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หรือ OTP จากนั้นกดปุ่มโอนเงิน
이체정보 확인 화면이 나오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으면 이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ป้อนรหัสใบรับรองตัวบุคคล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ป้อนรหัสใบรับรอง
เป็นขั้นตอนนี้สุดท้ายของการทำ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거래를 끝냅니다.

เคล็ดลับการใช้งาน

หากป้อนรหัสโอนเงินหรือรหัสใบรับรองผิดพลาดติดต่อกันหลายครั้งจะมีผลให้ไม่สามารถโอ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ได้ ในกรณีเช่นนี้ให้ไปติดต่อที่ธนาคารเพื่อ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ปัญหาเรื่องรหัสผ่านให้แล้วเสร็จ จากนั้นก็จะสามารถกลับมาใช้บริการได้อีกครั้ง

사용 Tip

자금이체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은행창구에 가서 비밀번호 오류를 처리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สรุป
정리하기**

- 1. ทำไมถึงต้อง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
การฝากเงินไว้ที่ธนาคาร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เก็บเงินได้สะดวก ปลอดภัย และได้ดอกเบี้ย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บริหารเงิน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อีกด้วย
 - 2. ข้อดีของ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ตู้ ATM คืออะไร?**
ตู้ ATM เป็นเครื่องรับจ่ายเงินอัตโนมัติ ที่ช่วยให้เรา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ต่างๆ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โดยไม่ต้องผ่านพนักงานธนาคาร นอกจากนี้เรายัง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ตู้ ATM นอกเหนือเวลาทำการ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ด้วย
 - 3. เหตุผลที่ควรใช้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คืออะไร?**
สะดวกและประหยัดเพราะเพียงมีคอมพิวเตอร์หรือสมาร์ทโฟนก็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 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เสี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ำหรับบริ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บัญชีอื่นภายในธนาคารเดียวกัน
 - 4. ข้อควรระวังเกี่ยวกับรหัสมีอะไรบ้าง?**
ห้ามตั้งรหัสโดยใช้ข้อมูลส่วนตัว เช่น หมายเลข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วันเดือนปีเกิด,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ฯลฯ รหัสเป็นข้อมูลสำคัญที่ควรเก็บรักษาไว้เป็นความลับห้ามบอกให้คนอื่นรับรู้อีก และควรเปลี่ยนรหัส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5. คนที่ไม่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ได้หรือไม่?**
ในพื้นที่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ช่น กว่างฮวาม, ฮีแฮริออน, อันซัน เคียงกิลโด ได้มีการจัดเคาน์เตอร์ไว้บริการลูกค้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ทำ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ตรวจสอบรายชื่อสาขาของแต่ละธนาคารที่มีเคาน์เตอร์บริ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ที่ 'ภาคผนวก 1') นอกจากนี้ธนาคารส่วนใหญ่ยังมี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คอ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ากคุณ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ก็มักจะลองใช้บริการนี้ดู(ตรวจสอบ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ของแต่ละธนาคารที่มีบ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ที่ 'ภาคผนวก 2')
- 1. 은행을 왜 이용해야 하나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을 수 있고 이자도 생기는 등 돈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 2. ATM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TM은 현금자동입출금기입니다. ATM을 이용하면 은행직원 없이도 혼자 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은행 영업 시간 외에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 3.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터넷뱅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업무를 할 수 있고, 같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는 따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4. 비밀번호에 관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생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나만의 소중한 개인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5. 한국어를 못해도 은행거래를 할 수 있나요?**
서울 광화문, 이태원,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의 은행에서는 외국인 전용 데스크 설치 장소가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 전용 데스크 정보 목록은 '참고자료 1' 참조). 또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별 외국어 상담 콜센터 번호는 '참고자료 2' 참조).

6.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หน่วยงาน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หากมีเบอร์ติดต่อหน่วยงานที่คอย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อย่างมากในยาม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หรือภาวะวิกฤติหน่วยงานเหล่านี้หลายหน่วยงานจัด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จึงไม่ถือเป็นการเสียทรัพยากรให้บริการในยามที่จำเป็น

6. 도움을 주는 기관 연락처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미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상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도록 합니다.

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 제공서비스	ชื่อหน่วยงาน 기관명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전화번호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พำนักและวีซ่า 체류, 비자 상담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ข่าวสา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ครอบครัวพลกรัง วัฒนธรรม/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ปัญหาการใช้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 ต่อสต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บริการคำปรึกษาประจำวัน 다문화 생활상담 / 이주여성 폭력상담 / 생활통역 서비스	สายด่วน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หาบุรี (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ทุกวัน) 다누리콜센터(연중 무휴)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สต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งโซ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577-1366 02-733-0120
แจ้งเห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 각종 범죄신고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 경찰청	112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ประจำกรุงโซล / สามารถขอคำแนะนำระหว่างรับคำปรึกษา 서울시 상담 / 외국인 통역상담 가능	ท่าซุนคอลลีเซ็นเตอร์ 다산콜센터 โซล 글로벌เซ็นเตอร์ 서울글로벌센터	120(+9) 02-2075-4180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เกี่ยวกับ ปัญหาการดำรงชีพเงินเดือน, การ ตกงาน/ การอบรม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 คอมพิวเตอร์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임금 체불, 실업 등 상담 /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กรุงโซล)(서울) 032-431-5757(อินชอน)(인천) 062-946-1199(คังจู)(경주) 055-338-2727(คิมแอ) เป็นต้น (김해) 등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พื่อเคลียร์ปัญหา ระหว่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และนายจ้าง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해결 상담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บริโภค 소비자상담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ผู้บริโภค 소비자상담센터	1372
เหตุเพลิงไหม้ / ภัยพิบัติ / การรักษา พยาบาลเบื้องต้น / ข้อมูล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รายชื่อ / 구조 / 응급 의료 / 병원 정보	ศูนย์รับแจ้งปัญห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119 119안전신고센터	119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เงิน 금융상담	สายด่วนกองกำกับดูแลด้านการเงิน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Siheung Childbirth and Child Care School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16)

- **Eligible for Support** : Pregnant women 16 to 36 weeks pregnant, a couple, multicultural pregnant woman, soon-to-be married couple
- **Support Contents**
 - Time : March ~ November (pregnant woman -2 semester / 4 classes (per semester), grandparents - 1semester/3 classes)
 - Place :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 health care education room (2nd floor)
 - Contents : education related to child birth and care
 - How to Register : with a advance reservation (Pregnant women and grandparents 30 persons)

"I want to be a mother" Infertility Prevention Education

Jeongwang Health Center (031-310-5916)

- **Eligible for Support** : prospective parents, newlyweds, fertile women, and infertile couples
- **Support Contents**
 - Time : April(2 times), October(2 times)
 - Place :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 health care education room (2F)
 - Support Contents : Pre-health care for healthy pregnancy, pre-infertility health care, and infertility prevention education
 - Registration : pre-reservation system (within 30 people)

"Breastfeeding Clinic" Siheung Breastfeeding 119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 (031-310-5837)
Jeongwang Public Health Center (031-310-5941)

- **Eligible for Support** : lactating mothers and who are more than 20 weeks pregnant
- **Contents**

Pregnant woman	Guidance on breast management during pregnancy, instruction on lactation, individual breast diagnosis and lactation
Lactating woman	Breast feeding posture correction, breast feeding and shortage counseling, breast and nipple problems management, etc.

• **Operate Time**

Siheung Health Care Center	2nd and 4th Thursdays of the month starting March 2019 10:00AM ~ 12:00NN
Jeongwang Health Care Center	2nd and 4th Tuesday of the month starting February 2019 10:00AM ~ 12:00NN

* Reservation calls are essential

Breast Pump Rental

Siheung City Public Health Center (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Eligible for Support** : It is available for two weeks of the rental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re-applying for extension of the additional period is possible right after the consultation if there is no one waiting).



Premature and congenital abnormalities Support

Siheung City Public Health Center (031-310-5838)
Jeongwang Public Health Center (031-310-5941)

- **Eligible for Support**
 - Families with premature babies with a monthly average income of 180% or less.
 - Regardless of income level, they will receive the support In the case of premature infants and infants with congenital disease born over the second child,
- **Support Contents**
 - Encourage premature and infants with congenital disease to receiv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 Registration management for premature babies and infants with congenital disease
 - differential support by income
- **Ways to Apply** : Prepare the documents and apply to the local public health center where the newborn resident is registered within 6 months from the discharge date.
- **Documents Needed**
 - Application for medical expenses for premature infants with congenital disabilities (Public Health Center)
 - 1 original copy of medical expenses receipt and 1 detailed statement of medical expenses
 - 1 copy bank account
 - 1 copy of birth report (birth certificate).
 - 1 original copy of the medical certificate containing the disease name (must be submitted even for premature babies)
 - Submit a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if the address of the couple is different
 - couple's ID card(a stamp is needed for one's who can't come), the woman who gave birth (* 100% reservation)



Pregnancy · Childbirth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Support for Congenital Metabolic Test

Siheung City Public Health Center (031-310-5838)
Jeongwang Public Health Center (031-310-5938)

- **Eligible for Support** : All born child within the jurisdiction(newborn screening within 3-7 days after birth)
- **Support Contents**
 - (examination) phenylketonuria, thyroid hypothalamus, homocystinuria, maple diuretic, galactosemia,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 (First examination fee) 22,000won to 41,000won, personal expenses for wages, which are approved only if they have been inspected for up to 6 months.
 - Patients who are confirmed to have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after the second close examination are charged to the health center for examination and provided around 70,000 won.
- **Documents Needed**
 - application
 - Medical expenses receipt
 - Detailed Medical history (amount displayed)
 - Passbook copy
 - In case of request for confirmatory inspection fee,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submit within 1 year from the date of birth)



'Citizen's Happy Card' Support

Health and Welfare Customer Service Center (129 without area code)
Social Service Call Center (fee required) 1566-3232

- **Eligible for Support** : health insurance members whose pregnancy is confirmed by the pregnancy certificate or those who apply for pregnancy & childbirth expenses support
- **Support Contents**
 - a national funded voucher to support the cost of pregnancy
 -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s for adolescent mothers (Support for pregnant women under 18 years of age is within 1.2 million won per pregnancy)
 - Pregnancy Health Insurance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s Support
 - Support for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care
- **Ways to Apply** : Apply 'Citizen's Happy Card' to BC Card, Lotte Card, Samsung

Congenital metabolism abnormal child management support

Siheung City Health Center (031-310-5838)
Jeongwang Public Health Center (031-310-5938)

- **Eligible for Support**
 - Diagnosis of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 Children under 19 years of age who are deemed to require medical assistance such as special formula powder
- **Support Contents**

Special formula, low protein food support	Medical expenses (including pharmaceutical expenses)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childre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such as phenylketonuria, which require special formula and low protein foods • Refer to the doctor's prescriptions and opinions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intake of the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 with congenital hypothyroidism : The proportion of medical expenses for the year (including unpaid in the previous year) is paid within the range of 276,0000 won • You can apply based on the time you were diagnosed with a congenital metabolic abnormality and registered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pplication for assistance). • Special dietary support for children with Crohn's disease and short bowel syndrome among rare intractable diseases

- **Documents Needed**
 - application
 - Doctor's certificate
 - Original receipt (receipt of medical expense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 Copy of the bank account
 -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if the address of the couple is different)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English



Pregnancy · Childbirth

'집콕 온(溫)택트 운동교실' 눈길

다문화가족도 홈트레이닝 건강관리 참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체육관, 헬스장 등 운동공간이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하며 시민 건강관리에 나섰다.

'집콕 건강체조'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날 수 없으나 마음만은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함께 운동한다는 주제로 제작했다.

영상은 다양한 주제(난이도별 건강체조, 대상자별 스트레칭, 부위별 집중운동 등)로 편당 2~ 3분 내외로 구성했다. 보건소 운동지도사의 지도로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제작할 예정이다.

영상은 9월 말부터 시흥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집콕 건강체조'를 검색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코로나19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운동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신체활동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코로나로 중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접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LIVE 운동교실, 맞춤형 운동상담 및 운동일지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시흥시 보건소(031-310-5874, 58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小学生以下支援20万韩元照顾儿童特别支援金, 中学生支援15万韩元学习支援金

政府于9月23日确定了各种支援资金发放计划。其中包括小工商业者新希望资金和紧急雇佣稳定支援金, 照顾儿童特别支援金, 青年特别求职支援金, 移动通信费支援等。

初中以下儿童学习支援金从9月28日起支付。照顾儿童特别支援金20万韩元已开始支付, 未就学儿童支付到儿童津贴领取账户上, 小学生支付到学校银行账户上。对13~15岁中学生的15万韩元紧急在线学习支援金将通过事前介绍、本人同意及确定对象等措施, 预计于10月初支付。

针对因失业及停业、停业而导致收入减少的55万户家庭提供的紧急生活支援金将于10月中旬开始接受申请。经过审查, 从11月开始支付。

16~34岁和65岁以上者支援通信费
移动通信费支援金2万韩元将在10月份通过从通信费中扣除的方式进行支援。科学技术信息通讯部针对满16~34周岁(1985年1月1日~2004年12月31日出生者), 和满65周岁(1955年12月31日以前出生者)的韩国国民为对象, 在9月份为止所拥有的1台手机给予减免2万韩元的电话费用。减免对象通信费不必另行申请将在10月份电话费中自动予以扣除。(减免对象不包括三家通信

社的精明手机及预付款手机, 法人用手机等。) 若10月份通信费不到2万韩元时, 其余从11月份通信费中扣除。支援对象将在中秋节之前通过相应手机发送短信(SMS)方式进行。咨询事项可以通过正在加入的通信公司的呼叫中心或通信费支援专用呼叫中心、科技信息通信部CS中心进行确认。对各种支援金的基本咨询请拨打☎ 110电话(“一站式呼叫中心”加油吧, 大韩民国呼叫中心)对于各追加更正预算项目的支援内容和程序, 可利用该事业主管部门的呼叫中心▲中小企业风险投资部呼叫中心(☎1357)▲雇佣劳动部呼叫中心(☎1350)▲保健福利部保健福利咨询(☎129)。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키 지원 등이 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9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퀴뱅크 계좌로 지급한다.

<한글 기사 36면>

김희선 기자

政府が支給する多様な支援金、多文化家族申し込み急いで

新希望資金(새희망자금)と緊急雇用安定支援金、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就職支援など

政府は小商工人と特雇(特殊雇用職)・フリーレンサーフリーレンサー、児童ケア職などに支援金を最大限支給する方針だ。

特に今回の支援金は申し込み順に支給するため、多文化家族は申し込みを急いだ方がいいだろう。

政府は9月23日各種支援金に対する支給計画を確定した。小商工人新希望資金と緊急雇用安定支援金、児童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就職支援、通信費支援などだ。

今回の災害支援金支給は、政府が行政情報などを活用し分類した支援金支給対象に案内メッセージを送り、受け取った対象者はオンラインで申し込むという方法だ。

政府は申し込みを受け付け次第、最大限迅速に資金を入金するという方針だ。申し込み順に支給されるが、支援対象と支援規模がすでに決まっているため、申し込みが遅れても支給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

特殊雇用職に緊急雇用安定支援金

一番最初に支給が始まる事業は緊急雇用安定支援金だ。1次支援金を受領した特雇(特殊雇用職)労働者とフリーレンサー50万人に、50万ウォンづつを追加支給する事業で、24日からスタートする。特殊雇用職労働者として働く多文化家族にとってはたいへん有用だ。

政府は1次支援金を支給する対象のデータ等をすでに確保しており、申し込み意思が確認され次第支援金を入金する。雇用部は9月18日に対象者に案内メッセージを送り、申し込みを受付中だ。別途の審査は行わず、秋夕連休前に支援金を支給する。

1次支援金を受給していない特雇・フリーレンサーのうち、2次支援金新規申込者については20万人

を選定し、一人当たり150万ウォンづつ支給する。2次支援金新規申し込みは10月12~23日だ。政府は所得減少状況などを確認して、11月に支援金を支給する予定だ。

低所得脆弱階層に青年特別求職支援金

低所得・脆弱階層対象青年特別求職支援金50万ウォンは29日から支給する。支援対象は昨年と今年の青年求職活動支援金や就業成功パッケージ(就成パ)事業に参加した未就職青年だ。1次申し込み対象者には23日に案内メッセージを送付した。10月24日までの就職成功パッケージ事業に参加している青年も支援対象に含まれる。既存事業の求職促進手当てを受給していない者を含む1~2順位の申し込みは、9月24~25日、3順位は10月12~24日に受付ける。

売上げ減少小商工人に新希望資金

売上げが減少した小商工人に、最大200万ウォンを支援する新希望資金も、9月25日から支給をスタートする。秋夕前支給対象者には23日午後から文字メッセージで案内し、24日から申し込みを受け付け、25日から支給がスタートする。9月24日から専用オンラインサイトで申し込みが可能だ。別途の書類提出は必要ない。事業者番号と講座番号など追加情報だけを入力する。ただし本人認証のために本人名義の携帯電話が公認認証書を事前に準備すること。

秋夕前の1次支給対象から外れた特別被害業種については、秋夕以後に迅速に支給する。

<한글 기사 5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착한소비, 나누는 추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부천다가에 농산물 전달

추석을 맞아 부천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노력도 많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지난 9월 25일 오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 부천다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착한소비, 나누는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등 50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50박스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상영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지사장과 백운영 센터장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매년 '아름다운 자매결연시대' 6가정을 연결하여 분기별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소사보건소, 비대면 '오감 만족' 조리체험교실 운영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7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한 비대면 조리체험교실이 아동에게 큰 즐거움을 주며 마무리됐다.

조리체험교실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초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재울어린이집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참여기관은 영양교육자료와 재료를 수령한 후 생활터에서 자체인력으로 조리체험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아동은 '아삭아삭 과일화채로 여름나기',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알록달록 신호등 샌드위치 만들기' 조리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소사보건소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칫솔, 자일리톨 등도 함께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한 한 아동은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에 지루했는데, 과일 크림치즈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먹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더 활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진행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쿠킹클래스·글로벌교육지도사·리본공예 등 진행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글로벌 쿠킹클래스 (1차)
대상자모집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한식 요리키트 제공
집에서 맛있는 한식 밑반찬을 만들어 봐요!

일시	10월12일~10월 30일(주 2회, 총 6회)
대상	결혼이민자 20명(선착순 모집)
내용	요리키트를 이용하여 한식 밑반찬 만들기(비 대면 진행)
장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리키트 수령)
신청	9월22 일(화)~9월 29일(화), 전화신청
문의	032-327-1370 / 070-4457-6106 임지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Made with MANGO BOARD

대면으로 진행되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이 센터에 오지 않고도 즐겁게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글로벌 쿠킹클래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2일~30일 총 6회기에 걸쳐 2020년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글로벌 쿠킹클래스 1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식요리 키트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이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한식 밑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 20명이 대상이며 센터에서 미리 요리키트를 수령해 한국 밑반찬 만들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활동 후 만족도조사 및 활동사진(요리사진)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문의 032-327-1370, 070-4457-6106

글로벌교육지도사 2~3급 양성교육

글로벌교육지도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에 방문하여 다문화강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전문 다문화 강사를 말한다.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에 오전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1회기에 글로벌교육지도사 2~3급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이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21회기 63시간 동안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사 스피치, 교수법 ▲유아교육계획안 및 작성법

▲유아동 발달의 이해 ▲동화구연, 교육 자료 만들기 등을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별 신청 인원이 많을 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리본공예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리본공예를 진행한다.

다문화강사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 10명이 대상이며 15회기에 걸쳐 바니 헤어밴드, 원단 헤어밴드, 엘리스 책갈피 등을 만든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되며 주 2회 교육 영상을 확인한 후, 본인이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야 수업으로 인정 받는다. 밴드는 추후 개설하여 수강생을 초대할 예정이다. 무료인 재료 키트는 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센터 측은 리본공예 교육을 통해 자격증 없이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공교육 편입 어려운 55만 이주배경청소년, 그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인터뷰〉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에 와 명문대 입학한 김원원 씨 이야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모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뒤늦게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엄마가 한국 남성과 재혼하면서 원치 않는 외국 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은 언어, 문화, 학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국내성장 자녀(다문화 가정 자녀, 만 9~24세)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9%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주로 자란 중도입국 청소년은 같은 물음에 66.8%만 재학 중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편입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곁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업을 중단한 채 알바 혹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8년에 한국에 온 김원원 씨(21세, 중국)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꽤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J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올해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알바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김 씨를 9월 16일 부천에서 만났다. 그를 통해 힘겨운 한국생활을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언제 한국에 왔나?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학교생활은 어땠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왔다. 엄마가 내가 6살 때 한국 남자와 재혼했다. 7년을 이모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원래 말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의 눈치만 봤다. 초등학교 때는 중국에서 온 아이가 나까지 2명이었다. 아이들이 종종 내 앞에 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길래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집에 와서 내가 들은 말을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욕이라고 하더라. 더 소심해지고 더 우울해졌다.”

-차별이라고 느끼는 일도 있었나?

“내국인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에 나는 도서실에 가 있었다. 청소를 할 때도 나는 예외였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외국인이니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때는 나를 배려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차별이라는 사실을 안다.”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지 않았나. 어떻게 배웠나?

“영유아들이 보는 동화책을 엄마와 함께 읽었다.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배울 형편은 안돼서 자음과 모음을 매일 외우고 길거리의 간판을 읽으며 공부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엄마가 상점에 들어가서 가격 물어보는 일을 시켰다. 소심한 성격이라 힘들었다. 울면서 가격을 물어봤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 진학했다. 공부를 잘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수시 특별전형 중의 하나인 ‘외국인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경제학과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나?

“외국인 전형이 있는 대학교를 사전에 열심히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담했다. 대학교 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일을 열심히 했다. J대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보다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토익(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 다른 부분을 많이 봤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는 누구에게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이주민 지원기관인 경기글로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동급생들이 대부분 전교에서 10등 이내에 들던 친구들이다. 거기다 어떤 과목은 수업자체를 영어로 하기도 하고 시험을 영어로만 치는 과목도 있다. 실력이 부족하다보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공부했다. 1학년 때는 성적이 형편없었고 올해는 조금 나아져서 일부 장학금도 기대하고 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나?

“작년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다른 내국인 친구들과 비교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 입학할 때 중국에 있는 오빠가 등록금을 대줬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너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더라. 지금 가정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알바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 오빠 말을 듣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 마음을 새롭게 했다.”

-알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유명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생팬이 공장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각서까지 쓰고 일한다.(웃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매일 일하는 것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출근한다. 요즘은 대학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서 강의까지 듣고 나면 새벽 2시가 된다.”

-힘들지 않나?

“알바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부럽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알바를 하며 살았다. 명동 주얼리 매장에서 12시간 동안 서서 일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1.5배 시급을 주지만 대부분 최저시급을 준다. 알바를 하며 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같은 대학교에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알바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더라. 하지만 내가 아는 내국인 친구들도 다 나처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크게 슬프지는 않다.”

-엄마는 다문화가족이면서 이혼한 한부모가정을 이끌고 있다.

“하루는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더라. 엄마의 삶에 대해 듣고 안쓰러웠다. 엄마는 20대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던 것 같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팠다. 그냥 마음이 아팠다.”

-한국에는 힘겹게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나도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이러한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히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 찾고 노력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겠다.”

김원원 씨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생존하는 중국입국 청소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는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을 엄마와 함께 감당하며 대학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도전에 나설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김원원 씨를 만나고 기자는 더 큰 의문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김원원 씨는 오늘날 우리 사회 20대 대학생들이 가진 좌절과 희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를 벌기 위해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알바에 나서며 최저시급과 싸우는 이들, 자신의 곤궁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이들이 대견하면서도 벽차게 느껴진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毒感疫苗暴露于常温下部分接种中断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시 중단

다문화가족 포함해 외국인 및 중국동포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기억해요

进入9月后毒感疫苗注射开始启动了。由于个人自身抵抗力弱，每年入冬自己都会得一次重感冒。从去年开始小编也开始接种毒感疫苗，幸亏自己接种了疫苗，才在今年年初的重感冒中得以短时间恢复。所以今年得知疫苗开始接种后，虽然不在免费接种范围，为了个人健康也于9月14日在水源家族保健医院自费接种了毒感疫苗，鉴于今年的新冠疫情，另外在医生建议下同时接种了下图中的肺炎疫苗。今年的毒感疫苗价格略有波动，注射地点也更为严格。单项接种毒感疫苗4万元，肺炎疫苗11万元，同时接种有优惠，个人有国民健康保险的情况下两项 个人共花费了12万。笔者

者前往的医院价格很合理，上班族平日没有时间，周六也可以前往。当日虽然前去接种的人员很多 特别是老人和婴幼儿，但是医院的防护工作很到位，等待人员之间确保安全距离，佩戴口罩，体温检测都很到位。但是近期从新闻中得知，疾病管理厅21日表示：“在流感采购合同企业的流通过程中发现了问题，计划暂时中断国家流感疫苗接种。” 发现问题的疫苗是13~18岁对象使用者。具体情况和检查还在调查中，时间大概2周左右，所以无论是免费接种人群还是自费前往者，笔者建议错开本周和下周时间。等情况明朗化后再行前往！

具体新闻如下：

韩国政府今年突然暂停了免费接种流感疫苗的计划，是因为在配送疫苗的过程中，冷藏温度未能正常维持

22日，疾病管理厅厅长郑恩京在举行的“国家流感预防接种工作暂时中断相关新闻发布会”。透露，根据采购合同，新星药品将向各医疗机构提供向免费接种对象供应的1千259万剂（每次接种量）疫苗，截至前一天，共供应了500万剂左右，其中部分疫苗出现了问题。郑厅长解释说：“根据目前掌握的情况，判断出冷藏车在按地区重新分配（疫苗数量）的过程中，部分暴露在常温下”，疫苗在常温下暴露的话，有可能影响蛋白质的含量。具体的暴露时间、问题与否等需要进行调查”。接着，他补充说：“（签订采购合同的）相关企业并没有直接报告，而是通过其他渠道进行了举报，得到了确认”，“计划通过客观的文件和调查等来确认到底是哪种数量出了问题”据预计，最终检验疫苗的质量大约需要两周左右的时间，并表示：“如果进行某种程度的检查和研究，在（2周左右）之前也会进行判断。尽量按照计划进行62岁以上高龄层的接种日程，进行管理。” 郑厅长表示：“虽然这不是制造上的重要缺陷，但在以冷藏状态供应医疗机构的供应网中，部分（物品）未能保持温度的事例被怀疑，因此会考虑安全性等来进行调查。” 但如果得出安全性问题结论，今年的流感接种计划难免会出现差池。 一直致力于防止新型冠状病

毒感染症（新冠19）和流感同时流行的政府的防疫应对也将受到部分影响。为了防止今年科罗纳19和流感同时流行，政府今年将流感免费接种对象大幅扩大到了占人口37%的1千900万人。 郑厅长表示：“废弃疫苗数量的问题在判断出有哪些后才能决定”，“我们正在了解供给情况，检查问题所在，讨论医疗机关自己确保的疫苗数量首先恢复接种的方案等”。 他表示：“在出现安全问题的情况下，我们认为调查相关内容后恢复接种是安全的，所以紧急进行了介绍”，“希望医疗机构、国民能够谅解”。

另外，疾病厅表示，虽然流感免费疫苗接种暂时中断，但收费接种仍在继续。

9월 들어 독감 백신 예방주사 접종이 시작됐다.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탓에 매년 겨울이면 독감에 걸린다.

지난해부터 필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접종 후 면역력이 좋아져 올 초 독감에 걸렸지만 단기간에 회복됐다. 그래서 올해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 건강을 위해 지난 14일 지역 병원에서 자비로 독감백신을 접종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 페렴 백신을 의사의 권유로 동시에 접종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조양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免费流感病毒疫苗 무료 독감 바이러스 백신접종 당초 계획

近期因为新冠病毒，人心惶惶，大家都期盼着疫苗的出现。除了新冠病毒，近期流行性病毒感冒也是不断出现。2019年末开始至今，美国因为流感死亡人数上万，近期韩国也不断出现流行性病毒感冒加新冠肺炎病毒的患者。

流感的症状和新冠肺炎的症状有很多相似点，比如都有呼吸道不适，及高烧，身体酸痛等反应，所以一旦有了这些症状，很难辨别到底是得了新冠还是流感。所以小编建议大家还是尽早去接种流感疫苗，大概费用在3万元左右，大家可以到相关医院进行具体询问。上图为可以免费接种疫苗的群体及接种期限。具体内容为

1. 满75岁以上老人，接种期限是2020. 10. 13-2020. 12. 31. 2. 满70-74岁老人，免费这种期限为2020. 10. 20-

2020. 12. 31). 3. 满62-69岁老人，免费接种日期为2020. 10. 27-2020. 12. 31.

4. 生后六个月的婴儿，期限2020. 9. 8-2021. 4. 30. 5. 2020. 8. 31号以后出生到满18岁（儿童及青少年），接种时间2020. 9. 22-2020. 12. 31. 6. 孕妇，接种时间为2020. 9. 22-2021. 4. 30.

天气转凉，感冒的高发期慢慢来临，如果两种病毒一起流行，稍有不慎，诊断，治疗都会陷入混乱，后果真的不可预测。所以在韩的同胞们，提前做好预防，自我小心保重。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행성 바이러스 감기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이나 됐고 최근 한국에서도 유행성 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독감의 증상과 코로나19의 증상은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호흡기 불편과 고열, 신체가 쭈시는 등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독감백신 접종을 받기를 권하며 대략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당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집단 및 기간이다.

1. 만 75세 이상: 접종기간은 2020.10.13-2020.12.31이며 무료다.

2. 만 70~74세 노인은 2020.10.20-

2020.12.31이며 무료다.

3. 만 62-69세 노인은 2020.10.27-2020.12.31이며 무료 접종이다.

4.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의 기간은 2020.9.8-2021.4.30.이며 무료다.

5. 2020.8.31 이후 신생아부터 만 18세(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접종기간은 9.22~12.31이며 무료이다.

6. 임산부 접종 기간은 2020.09.22.-2021.04.30까지의 기간이다.

요즘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감기의 발병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두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하면 자칫 진단치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 챙기길 바란다.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21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2세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4만 3,000원~47만 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종일반 및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폐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기존의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며,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간헐적으로 연장보육 이용 및 지원 가능합니다.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 50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야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호적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9,89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만 1,860원,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7,912원	1,978원	1만 81원*	1,779원	8,895원*	2,965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934원	3,956원	6,523원*	5,337원	5,930원	5,930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형 - '가, 나' / B형 - '기') 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시간당 9,890원)		종합형(시간당 1만 2,860원)					
		A형(2013.1.1. 이후 출생)	B형(2012.12.31. 이전 출생)	A형(2013.1.1. 이후 출생)	B형(2012.12.31. 이전 출생)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440원	7,420원	1,978원	1만 882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84원	1만 1,376원	1,484원	1만 1,37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만 2,860원	-	1만 2,860원

22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24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수당

- 대상** 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
- 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 부터)
-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정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 문의**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3~5세 누리과정

-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취약대상 아동(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6만 원	24만 원	24만 원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 상기 단가는 유아 교육입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임(20년 기준)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25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당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동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 반 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못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종 합 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제공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26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다함께 돌봄 사업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교) 이하 아동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예시(센터 여건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상이함)

구분	시간	프로그램	
방학중	09:00~10:00	출석확인, 자유놀이	
	10:00~11:00	독서지도, 숙제·학습지 풀기	
	11:00~12:00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EBS)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13:00~14:00	자유놀이(아와 및 실내놀이)	
	14:00~14:50	독서지도, 숙제·학습지 풀기	
	14:50~15:30	간식시간 및 휴식	
	15:30~16:00	프로그램	
학기중	16:00~17:00	프로그램	
	17:00~18:30	자유놀이, 귀가지도	
	18:30~19:30	저녁식사	
	일시돌봄	19:30~21:00	저녁돌봄(돌봄서비스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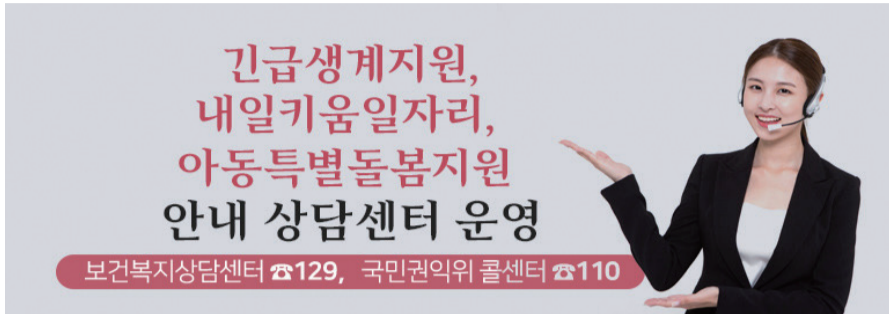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 방법**
 -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多文化家庭应尽快申请政府支付的各种支援金

支援金包括新希望资金和紧急雇用稳定支援金、照顾儿童特别支援金、青年特别求职支援金等。



政府的方针是，尽快支付针对小工商业者和特殊雇佣劳动者、自由职业者、照顾儿童等方面的支援金。特别是，此次支援金将按照申请顺序支付，因此，先申请者可以先领到支援金。因此，多文化家庭也要抓紧时间申请。

政府在9月23日确定了各种支援金的支付计划。其中包括小工商业者新希望资金和紧急雇用稳定支援金、照顾儿童特别支援金、青年特别求职支援金、通讯费支援金等。此次灾难支援金的支付方式是，政府利用已掌握的行政信息等，向各种分类的支援金支付对象发送短信后相应对象可

在网上进行申请。政府的方针是，只要接到申请，就尽快汇入资金。虽然采取按申请顺序支付的方式，但由于支援对象和支援规模已经确定，所以不会发生因申请晚而得不到支援金的情况。

紧急雇用稳定支援金最先开始支付的是紧急雇用稳定支援金。

针对领取第一次支援金的特殊雇佣劳动者和自由职业人50万名再次支付50万韩元补贴，从24日起执行。目前有很多多文化家庭都从事特殊雇佣工作，故该支援对其会有很大帮助。政府计划，由于已经

确保了支付第一次支援金的对象的数据信息，所以只要确认申请意向，就可立即将支援金汇入账户。雇佣劳动部继9月18日向他们发送通知短信后，截至当天还在受理申请。不需要另外审查，接到短信后预过申请就可以在中秋节连休前得到支援金。在没有接受第一次支援金的特殊雇佣工人和自由职业人中接受第二次申请，计划经过审核选定20万名，每人支付150万韩元。第二次支援金申请将于10月12日~23日接受。政府计划确认收入减少情况等，于11月支付支援金。

针对低收入弱势群体青年支付特别求职支援金

韩国政府从29日开始，将向低收入和弱势群体青年提供50万韩元的青年特别求职支援金。支援对象是去年和今年参与青年求职支援活动者或参加就业成功套餐项目的未就业青年。23日，向第一次申请对象发送了短信。截至10月24日，参与就业成功套餐项目的青年也将成为支援对

象。包括没有获得现有事业求职促进津贴的人在内，第1顺位和第2顺位的申请将于9月24~25日受理，第3顺位的申请将于10月12~24日受理。

针对销售额减少的小工商业者支付政府的新希望支援金

针对销售额减少的小商业者最多支援200万韩元的新希望资金也从今年9月25日开始支付。中秋节前支付对象从23日下午开始用短信通知，从24日开始接受申请，从25日开始支付。从9月24日开始可以在专用的在线网站进行申请。无需提交其他证明文件，只需输入营业执照号和公认证书(공인 인증서)信息即可。但是，为确认本人，必须准备本人名义的手机或公认证书。

对于没有包括在中秋节前第一次支付对象中的特别受害行业，将在中秋节后迅速支付。

<한글 기사 5면>

김희선 기자

언어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기간** 연중 수시 모집
-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생후 30개월~ 만12세 미만)
-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2층)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아동 2명 이상」시 지원 가능 ※ 가정방문 불가능

준비서류 및 서비스 절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선택) 부모가 사실혼 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1. 서비스신청	전화 및 내방 문의 → 평가 일정 확정
2. 초기면담 및 평가	평가(정상발달 시 종료) → 대기 및 교육시작
3. 교육진행	주 2회, 회당 40분 교육 원시(1회 6개월 진행)
4. 진전 및 종료평가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진전평가 실시 →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연장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언어교육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상담 및 평가 실시

● 현재 교육을 진행 및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68번가길 4
Tel) 070-4457-6108~9

여성가족부지원·경기도·부천시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콘텐츠 활용 민간공모 지원사업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하는 역사콘서트

'백년만의 만남과 기억의 여정'

김세환 백일장

온라인 백일장 유튜브 더 아시안 TV '아시아의 독립운동'과 '경기도의 독립운동' 영상 시청 후 감상문 제출

대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 방법 감상문(한글 A4 2장 이내)과 함께 이름·나이·연락처·주소를 weloveasian@naver.com으로 제출
※ 우수작품 10편 선정하여 선물과 상장 증정

접수 기간 2020.10.1~10.31

당선작 발표 11월 중순 개별 연락

문의 031-243-7688

| 주최·주관 | 디씨 아시아문화연구원 | 후원 | 경기문화재단
| 협력 | 독립운동가 김세환 집터 선양사업회 · 경기도 지정 항일운동 유적지·가빈 갤러리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지원

부천오정경찰서, 지원 및 예방활동 전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간담회도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장병덕)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회장 이순길)와 협업하여 생필품 지원 및 외국인 코로나 19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 21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경찰은 원시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식료품 판매점, 이슬람 예배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0가지 행동수칙 리플릿(9개국어 번역본)을 배포하고 외국인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용 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 이순길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침

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장병덕 경찰서장은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운 시기 다문화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간담회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4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천 다사랑로타리클럽과 오정다문화치안봉사단이 함께 했다. 다사랑로타리클럽과 치안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지역 다문화가정 30가구에 돼지갈비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병덕 오정경찰서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민·경 협력치안활동을 통해 평온하고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각 지역의 일선 경찰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추석에 외롭지 않도록

부천원미췌 외사자문협의회, 쌀 후원해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홍기현)와 외사자문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120가정을 선정하여 쌀 10kg, 120포(총 3,840,000원 상당)를 후원했다.

김현기 외사자문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해고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문화가정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품 전달행사 등을 하지 않고,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부천원미경찰

서·강남시장 업무협약에 따라 다문화 관련 기관을 통해 쌀 교환권을 받은 다문화가족이 해당 상점에서 물품을 개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기현 서장은 "외사자문협의회는 올 5월에도 이주민들이 자칫 코로나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300만원을 적시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추석에도 다문화가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이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갖고 한 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부천지역 이주민을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외사자문협의회 모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체류 외국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기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질병관리본부 KCDC

COVID-19 Response Guidelines, 9th Edition, Appendix 5: '10 Guidelines for Teens with Symptoms'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please keep People 10 guidelines

***Major symptoms of COVID-19**
fever (37.5°C/99.5°F or higher), cough, difficulty breathing, chills, muscle aches, sore throat, loss of taste and smell, and pneumonia

- 1 Do not go to school or work and avoid going out; stay home and rest.
- 2 When making medical appointments, notify your healthcare provider that you are showing clinical symptoms of COVID-19.
- 3 Monitor if clinical symptoms persist or get worse.
- 4 If fever persists or symptoms worsen,
 - ① Dial the KCDC Call Center at (1333, local area code + 120) or your local health center for inquiries
 - ② Visit a screening clinic and have a health care provider look at you

* When using an ambulance by dialing 119, notify the operator that you show clinical symptoms of COVID-19

- 5 Use a personal vehicle and wear a facemask when visiting a healthcare facility.
- 6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 7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or a tissue when coughing or sneezing.
- 8 Isolate your living space. Always maintain a distance of 2m from family or roommates you live with.
- 9 Do not share your personal items with others. Use separate towels, tableware, and cellphones.
- 10 Clean and disinfect frequently touched surfaces daily.

"Together, we stand resolute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2020.07. 13.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비대면 전환했더니 아빠 100% 참여 '놀라워'

오산건가다가, '이중언어환경조성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 긍정 반응 기대 이상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 오산건가다가)는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오산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을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으로 우선 발굴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칭도 '이중언어환경조성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명명해 코로나19 시대에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목표다.

이중언어 표현을 일상화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익히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신체, 인지, 정서를 통합한 활동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중언어 습득과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 대상이며 이주부모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이중언어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A, B, C 3개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별 10회기 총 30회기를 진행했다.(사진은 A그룹)

현재 모집 중인 D, E, F그룹 대상자를 중심으로 10월 3째주에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19로 집콕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공백과 학부모의 가정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소 대면 프로그램 시 엄마들이 주로 참여했으나, 비대면 가정학습으로 키트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아빠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빠들이 100% 참여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ดูแลพิเศษสำหรับ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 20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 150,000วอน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เมื่อวันที่ 23 กันยายนรัฐบาลได้ยืนยันแผนการจ่ายเงินอุดหนุนต่างๆ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สำหรั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การดูแลเด็กพิเศษ, รวมถึ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นหนุ่มสาว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

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เลี้ยงดูเด็กพิเศษ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ศึกษาตอนต้นและเด็กเล็ก

การจ่ายเงิน 20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พิเศษเริ่มเมื่อวันที่ 28 กันยายนเด็กก่อนวัยเรีย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ข้าบัญชีการจ่าย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และนัก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ข้าบัญชีธนาคาร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

15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เรียนรู้แบบตัวต่อตัว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อายุ 13-15 ปีจะได้รับเงิน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แจ้งให้ทราบล่วงหน้าความยินยอมและ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ณสมบัติ

แอปพลิเคชันสำห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การดำรงชีพ

ฉุกเฉินที่มอบให้กับ 550,000 ครอบครัวที่รายได้ลดลง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ว่างงานหรือการปิดกิจการเริ่ม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จะเริ่มใ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

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ที่มีอายุระหว่าง 16-34 ปีและมากกว่า 65 ปี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สื่อสารมีถึงจำนวน 20,000 วอน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ว่าเป็นกฎหมายสนับสนุนโดยหัก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สื่อสาร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

ปัจจุบันกระทรวงวิทยาศาสตร์ ICT และ ICT จัดขึ้น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สำ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ที่มีอายุ 16-34 ปี (เกิด 1 มกราคม 2528 ถึง 31 ธันวาคม 2547) และอายุ 65 ปีขึ้นไป (เกิดก่อนวันที่ 31 ธันวาคม 2498) ๑๑ 2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หนึ่งสาย

หากไม่มีการร้องขอแยกต่างหากการลดหย่อนหรือการยกเว้นจะ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สื่อสาร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จากผู้ให้บริการมือถือ 3 รายและโทรศัพท์ราคาถูกและแบบเติมเงินจะได้รับการลดภาษีแต่โทรศัพท์ของตัวเอง

จะไม่รวมหากค่าสื่อสารรายเดือนน้อยกว่า 20,000 วอนส่วนต่างจะ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อัตรา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บุคคล

ที่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ะได้รับแจ้งทางข้อความ (SMS) ทาง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อปปิ้ง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สงสัยได้ผ่า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ของบริษัทโทรคมนาคมที่สมัครอยู่ในปัจจุบั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ทุ่มเทให้กับค่าใช้จ่ายด้านโทรคมนาคมและศูนย์ CS 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ไอซีที

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เบื้องต้นเกี่ยวกั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ต่างๆได้จากศูนย์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ในระดับรัฐบาล (ยอมแพ้อ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เกาหลี: ๑110)

สำ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และวิธีการ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เพิ่มเติมและใช้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งกรมในค่าใช้จ่าย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ธุรกิจ Ventures Call Center (๑1357)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Call Center 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๑1350)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สุขภาพ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๑129) <한글 기사 36면> 이아리 기자

Менторск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한국장학재단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모집

Многие наверное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и на родине отличаются. Поэтому, помимо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ника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а так же приехавшим с родителя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трудно освоиться,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ой среде.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ной острой проблемой становится и успеваемость уче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видит потенциал будущего Кореи так же и в лице уче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этому остро ощущает проблемы и в целях их реше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омощь.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ознакомлю с одной из программ в рамках помощи ученикам.

В городе Ыйджонгбу, а так же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уточняйте в уп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стипендиальным фондом внедрили программу "Менторск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грамм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целях лучшей адаптации к школьной среде уче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а так же для учащихся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уденты из институтов 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могают студентам улучшить свои базовые академ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чём преимущества ?

Содержание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и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азового обучен

ия, дальнейшего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и просто помощь в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к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станут подопечными,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столичное / провинци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а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наставниками, подают заявл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дача заявк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порядке:

1 Первич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и заявка на услугу

Ученик-подопечный в районе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ставни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2 Рассмотрение заявки и изучение фактов

Рассмотрение и проверка фактов в Уп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3 Решение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Одобрение райо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образования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Услуг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м стипендиальным фондом.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ой, младший и старший школы.

Период приёма заявок: 20.08.31 ~

Содерж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редметы, требующие инструктажа среди шко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одной 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обществознание,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физ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музыка, искусство и т. Д.);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школьным заданиям;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игр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Процесс :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проводимое наставником студен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сещает дом подопечного (заявителя);

Желаемый день и время недели (пн-пт) согласовываются с наставником;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 телефону, а так ж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данную программу 031-878-7880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Пак Хён Кён. Центр помощ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города Ыйджонгбу.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과 모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다른 나라의 부모와 함께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수행 능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또한 한국의 미래 잠재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자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의정부시와 다른 도시(교육청에 확인)에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이 돕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기초학습을 지도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진로와 생활을 지도합니다.

-신청방법: 멘티가 되는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신청하고, 멘토가 되는 대학생은 대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멘티는 교육청에, 멘토는 대학교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교육청과 대학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교육청과 대학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모집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집일정 : 20.08.31~

-활동내용 : 학교 교과목 중 학습지도가 필요 하는 과목(한국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 학교 과제 지도 / 놀이 활동지도

-활동 진행방법 : 대학생 멘토가 멘티(신청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

1주일(월~금) 중 희망하는 요일, 시간대에 멘토와 조율하여 진행;

-접수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 문의 031-878-7880 박현경 사회복지사,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다문화·탈북학생 멘티 모집!
나를 실천 할 대학생 멘토 모집!
2020년 다문화·탈북학생 온라인 멘토링 실시

KOSAF는 지금!

활동기간 & 방법

-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지원대상

[멘티]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참여 대학의 재학생으로 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추천서를 제출한 학생

[멘토]

- 활동기관에 소속된 다문화·탈북학생 유아 및 청소년

활동내용

- 멘티의 학교 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고인상담 및 진로 지도
- 멘티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활동
-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학교생활 통역 지원

참여가능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 국·공립유치원, 남북하나재단 인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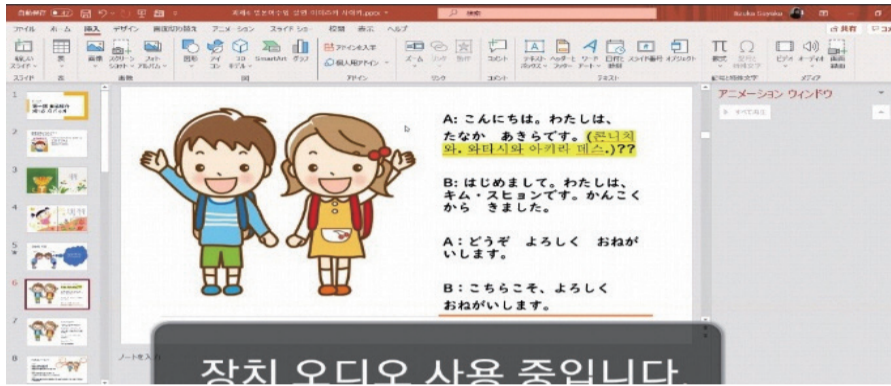
멘토지원사항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지급액 × 활동시간 [도시&농어촌] 12,500원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 불가
-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다문화가족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교육으로 새로운 희망, 꽃 피워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사업 3개 과정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낮은 한국 땅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키우며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다.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은 당초 대면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아 실시간 온라인수업 및 동영상 수업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일부 수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번역 역활동가 신규양성과정(15회기 30시간 10명)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심화과정(25회기 50시간 18명) ▲원어민강사(이중언어)양성과정(15회기 30시간 10명)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은 취업기초 소양교육으로 지난 9월 5일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온라인수업 이해하기(줌 사용방법교육)가 이뤄졌다.

통번역가양성 일반과정은 9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초입 2주간 통번역의 기본기를 익힌 후, 분

야별 집중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뤄지며 통번역의 기초와 기법 학습을 통한 실무 적용을 위한 통번역 기법 학습, 통번역사의 자세와 매너 학습을 통해 실전 연습 등이다.

교육내용은 통역의 종류, 통역가의 기본자세, 기호 만들기, 스토리가 있는 텍스트로 메모리 연습, 관광통역사 직업의 이해 등 관광통역1로 구성돼 있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심화교육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강사를 위한 강의스피치'는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0회기로 마련됐다. 다문화강사로서 필요한 스피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뤄진다.

강의는 다문화 강사로서 이미지의 중요성, 스피치의 기본, 한국어 발음의 이해와 연습, 발음연습과 보이스트레이닝, 스피치 구성, 강의 프로세스, 표현력과 전달력 높이기, 강의실습 등이다.

이주여성 대상 세계시민교육은 10월 5일부터 시작해 총 15회기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이론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카테고리별 워크숍 형

태의 교육을 통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수업은 세계시민교육의 개요 및 아동인권, 환경, 평화 등 주요 이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고 추후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세계시민교육을 보강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다.

원어민강사(이중언어) 양성과정은 9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총 15회기 30시간 진행된다.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교육,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대조를 통한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교구의 활용, 국가별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교구의 활용 공유, 이중언어 수업의 구성 및 진행 방법, 이중언어 수업의 강의 계획안 짜기(유아 대상, 초등 대상), PPT 강의 자료 만들기, 유아.초등 대상 수업 실무, 교안작성법과 모의수업(유아.초등 대상) 및 피드백 등이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인터뷰 통번역 활동가 태국 출신 이아라 씨

한국에서 꾸는 새로운 꿈 "한국 생활 어려움 겪는 친구들 돕고 싶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이나 문화 등은

금방 적응해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말을 몰라 어딘가를 가려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함께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직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한국말을 몰라 힘든 이들을 돕고 싶어요."

통번역활동가 신규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아라(41)씨는 약 5년 전에 태국에서 왔다. 유전학 연구원으로 일하던 인재였지만 낮은 한국 땅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기만 했다.

이아라 씨는 한국말이 늘면서 점차 생

활이 안정됐지만, 태국에서 온 초기 입국자 등을 돕고 싶어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포터즈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아라 씨는 "친구를 통해 통번역 서포터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처럼 한국 생활이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라며 "병원이나 공공장소,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말을 몰라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행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아 정확하게 통번역을 하지 못해 중요한 내용을 빠트

릴까 봐 걱정돼 이번 교육도 참여하고 평소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전에는 남편과 여행도 자주 가고 외식도 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기회가 있으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돼 처음엔 낯설었지만, 교통편을 따로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 좋아요. 교육받은 후 번역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아라씨는 통번역 활동가 신규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또 다른 꿈을 키워가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лужба для заявлений об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외국인주민을 위한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한국어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 큰 도움될 듯



У любого в жизни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предполагает вызов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Но если в св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е еще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мы учим наизусть не только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о и правила разговора с оператором, то как же поступать в чужой стране? Очень часто иностранцы, а именно брачные мигранты и студенты,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без должного знания языка. Поэтому как показывает статистика в более чем 60% случаев иностранцы не могли вызвать экстренную службу только из-за того, что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достаточно низок. Кроме проблемы в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случая, когда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 находясь в стрессов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забыть телеф

онный номер необходимой спецслужбы, либо же не совсем знать о своем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и.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а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о сей день стоит достаточно остро.

И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о всеми возникши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ъявило о созда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лужба для заявлений об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Данный сервис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с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функцией вызова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лицию и других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роек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ен на то, что даже не имея даже минимум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сообщить о какой-либо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Так, интерфейс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виде картинок, нажав на которую вы сможете попасть на необходимую службу. Например, изображение полицейской машины направит в полицейскую службу, пожарная машина - пожарную часть и т.п. Кроме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риложение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лее 13 языков и предоставит услугу перевод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между диспетчером и говорящим. Также в прилож

ени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Гео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ГИС/GIS),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достаточно точно отслеживать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заявителя.

Хоть проект находится еще в стадии разработк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н выйдет в общедоступный доступ со следующего 2021 года. Я считаю, что да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в разы упростило обращ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чрезвычайные службы, так как поможет сделать это независимо от кого-либо и не имея должного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озможно, данный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будущем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многих стран и иммигранты будут также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в любых ситуациях.

응급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긴급상황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소방서, 경찰서 및 응급실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교환원과 대화하는 규칙도 배웠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 즉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은 언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 없이 한국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 이상 외국인의 언어 능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긴급 서비스에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문제 외에도 응급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필요한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신고 출동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특별 프로젝트 "긴급 통보 통합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방서, 경찰 및 기타 긴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기능이 통합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어도 외국인이 긴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그림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 그림은 경찰서로, 소방차는 소방서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13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지리정보시스템 (GIS, GIS)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내년 2021년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긴급 서비스 신고를 크게 단순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국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식 없이 누구나 스스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한국정부의 경험은 앞으로 많은 국가의 모범이 될 것이며 이민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律师. 中介师免费为您提供对租赁3法的好奇心商谈

京畿道为了最小化因租赁3法的实行而引起的住宅市场混乱,将与大韩律师协会和民主社会的律师团体、韩国公认中介公司协会合作运营租赁3法咨询中心。

为此,京畿相关机关负责人一起签署了业务协议。

根据此次协议,京畿道将设立租赁咨询中心,并进行必要的行政支援。京畿中央地方律师会和京畿北部地方律师会积极协助包括租赁3法在内的法律咨询。

不久前引进的租赁3法的核心是合同更新请求权制、全月租上限制、全月租申报制。

合同更新请求权制是提供承租人(租户)以2年为期限,可以要求延长一次现有全租月租合同的权利。

全/月租的上限制规定,租赁人(房东)在延长合同时,不能超出比现有全租金或月租金合同金额的5%以上。

全/月租申报制规定,签订房屋租赁合同后,必须在30天内向政府申报合同当事人和保证金、租金、租赁期间、合同金、中转金、结余款缴纳日期等合同事项。

随着以上述内容为主的住宅租赁保护法修改案和房地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修改案的实行,承租人和租赁人之间的咨询也在剧增。

就连国内人都不太了解的内容,咨询的人络绎不绝,预计外国居民的混乱将会更大。

为此,京畿道为了扩大专门商谈,落实新制度,推进了此次协议。

租赁3法咨询中心将扩大目前由京畿道免费法律咨询室运营的租赁专门咨询中心,设置在京畿道开放信访室和京畿道厅北部大楼综合信访室等3处。运营方式是道民与专家进行电话商谈。

此前,京畿道委任了20名律师和公认中介师担任免费法律咨询委员,并支援了咨询。此次咨询中心扩大后,追加委任了39人,使咨询人员增加到59人。

李在明知事在签约仪式上表示“随着《住宅租赁保护法》的修订,现场将发生混乱,需要调整利害关系”,“提供准确的事前情报和专业判断,对于防止矛盾和圆满解决,各位将起到很大的帮助”。

接着,李知事表示“因为科罗娜19而下达禁止集合命令期间,谁来负担租赁费存在争议,这部分也应该有一定的基准”,“希望法律专家和鉴定评估师、负责部门等的意见汇总起来,制定内部标准”。

京畿中央地方律师会会长李正浩(音)表示“此次租赁3法直接导致利害关系冲突,因此最重要的是公平性”,“会进行让双方都能够引起共鸣的商谈”。<한글 기사 17면>

호 trợ tiền trợ cấp nuôi dưỡng đặc biệt 200,000 won cho trẻ em dưới cấp tiểu học, 150,000 won tiền hỗ trợ học tập cho học sinh trung học

Vào ngày 23 tháng 9 chính phủ đã cho thông qua kế hoạch chi cấp các loại tiền hỗ trợ. Các loại tiền hỗ trợ như tiền phí liên lạc, tiền hỗ trợ xin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tiền trợ cấp nuôi dưỡng trẻ em đặc biệt,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và quỹ hỗ trợ hy vọng mới cho các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ẻ ..vv..

Tiền hỗ trợ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cho học sinh dưới cấp trung học.

Từ ngày 28 tháng 9, tiền hỗ trợ chi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200,000 won đã được bắt đầu cấp phát. Đối với những trẻ chưa đi học thì tiền sẽ được chuyển qua tài khoản nhận tiền trợ cấp của trẻ em, còn đối với học sinh tiểu học thì sẽ cấp tiền qua tài khoản schoolbanking.

Số tiền 150,000 won tiền trợ cấp học tập online cho các trẻ học sinh trung học nằm trong độ tuổi từ 13~15 thì sẽ tiến hành thông báo trước. triển khai năm bắt số lượng đối tượng sau đó dự kiến vào đầu tháng 10 sẽ cấp phát tiền hỗ trợ.

Tiền hỗ trợ sinh nhai khẩn cấp dành cho 550 nghìn hộ gia đình bị giảm thu nhập hoặc là bị thất nghiệp. đóng cửa hàng thì dự kiến trong tháng 10 sẽ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Sau khi thẩm tra hồ sơ thì khoảng tháng 11 sẽ tiến hành cấp phát tiền hỗ trợ.

Hỗ trợ tiền phí liên lạc cho độ tuổi từ 16~34 và độ tuổi trên 65

Tiền hỗ trợ phí liên lạc cho trẻ em 20,000 won sẽ tiến hành trợ cấp theo phương thức trừ vào thẳng tiền phí liên lạc tháng 10.

Bộ thông tin kỹ thuật khoa học hỗ trợ tiền miễn giảm 20,000 won

cho người hiện đang sở hữu điện thoại tại thời điểm tháng 9 thuộc một trong các đối tượng sau là người từ độ tuổi 16~34 (có ngày sinh từ 1985.1.1.~ 2004.12.31.) người từ 65 tuổi trở lên (có năm sinh trước 1955.12.31.)

Không cần phải đăng ký, những người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sẽ đồng loạt được giảm tiền. Điện thoại của 3 hãng nhà mạng và điện thoại trả trước. điện thoại dùng gói cước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uy nhiên điện thoại công ty thì không thuộc nhóm đối tượng này. Trường hợp tiền phí liên lạc của tháng 10 dưới 20,000 won thì số tiền dư sẽ được giảm tiếp trong tháng 11.

Dự kiến trước trung thu thì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trợ cấp sẽ nhận được thông báo qua tin nhắn điện thoại (SMS). Mọi thắc mắc thì có thể hỏi qua tổng đài nhà mạng đang sử dụng hoặc là tổng đài chuyên trợ cấp chi phí liên lạc hoặc là trung tâm CS bộ thông tin kỹ thuật khoa học.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cơ bản thì có thể tư vấn thông qua tổng đài Onestop của bộ Thông tin (Call center Đại hàn dân quốc cố lên : ☎110)

Các nội dung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hỗ trợ theo từng doanh nghiệp thì có thể liên lạc qua số của tổng đài bộ chủ quản doanh nghiệp ▲ call center bộ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1357) ▲ tổng đài bộ lao động (☎1350) ▲ tổng đài tư vấn phúc lợi bảo hiểm (☎129)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온라인 국제교류로 협력방안 모색

파주시와 호주 투움바시, 영상통화로 논의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판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 해외 자매도시와 화상 교류를 통한 코로나시대 비대면 국제교류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9월 17일, 호주 투움바시(Toowoomba) 폴 안토니오(Paul Antonio) 시장과 영상통화를 통해 양 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향후 국제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시장은 먼저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기쁘다는 인사와 함께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상황과 양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그리고 최근 파주시의 홍수 및 태풍 피해 상황 등 근황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어 최종환 시장은 “9월 18일부터 27

일까지 개최되는 제71회 투움바시 꽃축제 개막을 47만 파주시민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개최하는 축제이니만큼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함이 없이 시민이 진정으로 즐기는 꽃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안토니오 시장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약된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이벤트들로 축제가 펼쳐지게 돼 아쉽지만, 내년에는 최종환 시장님도 꽃축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 시장은 영상통화에서 양 시의 대표적인 교류 사업인 ‘청소년 어학연수’와 ‘교환 공무원 연수’ 사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이어나가는 방안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교류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호주 투움바시는 물론 해외 자매, 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2020 모두가족봉사단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돌봄 및 나눔을 함께하실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접수 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 봉사기간: 매주 1회 봉사활동

● 봉사활동: 텃밭가꾸기 및 수확물 활용한 이웃 나눔

●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선착순 접수

문의: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4(통번역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 양육 공백, 안전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함께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가 1: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봐주는 개별돌봄서비스이다.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먹이기, 보육시설 등. 하원,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수족구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육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병 감염 아동서비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다.

군포시아이돌봄사업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를 적용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단,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며, 정부 지원비율은 기존 0~85%에서 40~90%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군포시아이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해 아이돌보미에게 정기적으로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이용가정 방

문 시 방역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준수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정부 지원 가능 가정에 한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성희 센터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이와 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92-1813)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

군포시, 4차 추경과 별도로 전액 시비 지원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다.

군포시는 2차 추경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청에서 발령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교습소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로,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방문판매업소, 목욕장업, 교습소 등 총 1,490여개 업소가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된 업소는 100만원씩, 방문판매업소와 영업제한업소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소는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총 예산은 1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군포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대희 시장은 “추석 이전에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2020년 10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참여가족 모집

대상	군포시 미취학 아동(4세 이상)~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 (15가족)
장소	참여자 가정 내
내용	1회기: 부모 '다누리배움터 10월 일반과정 종합신청' 온라인교육(10/1~10/14) 2회기: 자녀 '다문화 활동북 체험 및 세계나라 소품&악기만들기'(10/15~10/20)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gunpo.familynet.or.kr)
이용요금	"무료"
신청기간	2020년 09월 25일(금) ~ 접수 마감시 까지

1회기 : 부모교육 '다누리배움터 일반과정 (2시간)'

온라인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배움터** 다누리 배움터 일반과정(종합신청) - 4차시 이후 (2시간)

2회기 : 자녀교육 '너랑놀래 같이놀래' & 세계나라 만들기체험

중국
흔들이북

러시아
마트료시카

일본
조개부채

베트남
드래곤보트

- 뽀로로 '너랑놀래 같이놀래' 활동북 체험, 동영상시청, 온라인 게임
- 세계나라 악기만들기, 소품만들기 체험 만들기 활동

☺ 1회기 부모교육 수강일 : 10/1(목)~10/14(수)
☺ 2회기 교육키트 배분일 : 10/15(목) *수료증 제출 참여자 별도 안내
☺ 2회기 자녀교육 진행일 : 10/15(목)~10/20(화)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단체신청(자녀교육)은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부모-자녀 교육으로 1~2회기 통합신청되며 각 회기 따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031-392-1811
담당자 | 가족지원3팀 전 안 사회복지사

호 trợ chi phí hậu sinh, từ tháng 10 trở đi không cần xét thời gian cư trú, tất cả hộ gia đình cư trú trong tỉnh đều được hưởng

Hỗ trợ số tiền lên đến 500,000 won cho mỗi một cháu đối với những hộ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c gia đình người ngoại quốc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Bắt đầu từ ngày 15 tháng 10, không kể thời gian cư trú những đối tượng trên nếu sinh con tại tỉnh Gyeonggido thì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hậu sinh 500,000 won một cháu theo hình thức phiếu mua hàng khu vực

Để thực hiện điều này ngày 15 tháng 7 vừa qua tại tỉnh gyeonggido đã tiến hành cải chính “ điều lệ về hỗ trợ tiền hậu sinh khu vực gyeonggido ” và đã xóa điều lệ về tiêu chuẩn thời gian cư trú là “ điều kiện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do trên 1 năm ”

Đặc biệt theo điều lệ “ luật cơ bản về bảo đảm xã hội ” thì yêu cầu thúc tiến hội ý thay đổi điều lệ bảo đảm xã hội và bộ phúc lợi y tế, vào ngày 9 vừa rồi thì tại bộ phúc lợi y tế đã công nhận về sự cần thiết khi mở rộng hỗ trợ toàn bộ cho những gia đình sinh con sau khi thông qua điều kiện về thời gian cư trú. Theo như trên thì tại tỉnh gyeonggido tất cả mọi gia đình sinh con thì đều được hỗ trợ 500,000won tiền hậu sinh cho mỗi cháu mà không cần xét duyệt bất cứ điều kiện gì, đây là “phúc lợi bảo đảm phổ biến”.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bố hoặc mẹ ▲ ngày sinh của trẻ và ngày đăng ký hiện tại đăng ký chứng minh thư tại tỉnh gyeonggido ▲ hiện tại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do theo ngày đăng ký ▲ ngày đăng ký và ngày ra đời của trẻ phải không quá 12 tháng ▲ phải đăng kí khai sinh tại tỉnh gyeonggido và bố hoặc mẹ phải là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gười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thì chứng minh bằng giấy xác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bố mẹ đều là người ngoại quốc và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xác nhận vợ/ chồng thì phải thỏa mãn các điều kiện sau ▲ tư cách cư trú của trẻ mới sinh phải là F-5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 theo ngày sinh và ngày đăng ký thì hiện tại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do ▲ ngày đăng ký và ngày sinh thực tế của trẻ không được quá 12 tháng.

Cách thức đăng ký thì không cần các bước đăng ký riêng nào, chỉ cần đến ủy ban phường để khai báo khai sinh cho trẻ là được. sau khi kiểm tra tư cách cư trú thì ..vv.. qua các bước thì tiền hỗ trợ hậu sinh sẽ được chi trả theo hình thức phiếu mua hàng khu vực (phiếu hoặc thẻ hoặc dạng mobile)

Trường hợp đa thai thì tùy theo số lượng trẻ sơ sinh thì số tiền hỗ trợ sẽ được nhân lên theo mức 500,000 won một cháu. có thể chi trả trùng lập với tiền lương thai sản và tiền hỗ trợ quản lý sức khỏe sản phụ. trẻ sơ sinh.

Dự án hỗ trợ chi phí hậu sản là dự án nhằm thúc tiến khắc phục tình trạng dân số thấp và bảo hộ sản phụ. trẻ sơ sinh. cuộc bầu cử dân chủ lần thứ 7 tại tỉnh gyeonggido giúp giảm bớt gánh nặng kinh tế cho những gia đình sinh con.

Tại tỉnh gyeonggido từ ngày 1 tháng 1 thì đã bắt đầu dự án và đến cuối tháng 7 năm nay đã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cho khoảng 120,000 hộ gia đình với mức tiền lên đến 587 tỷ won.

Những người liên quan tại tỉnh gyeonggido đã nói rằng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hỗ trợ chi phí hậu sản lần này là biện pháp giúp thực hiện dự án “ tỉnh Gyeonggi là nơi tốt để sinh con ” và thông qua biện pháp này dự kiến có khoảng hơn 9,000 hộ gia đình có trẻ sơ sinh được nhận hỗ trợ. <한글 기사 1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군포시, 내년 12월까지 소득요건 갖추면 감면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

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8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8 TIP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WHEN WEARING A FACE COVERING

- BE AWARE**

Is the person you're communicating with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you? Ask and adapt if needed.
- BE PATIENT**

Face coverings block visual cues and muffle sounds that help us understand speech, which can make interactions frustrating.
- BE MINDFUL**

Consider how physical distancing might affect your communication. As distance increases, sound levels decrease, and visual cues are more difficult to see.
- BE LOUD AND CLEAR**

Speak up, but don't shout. Focus on speaking clearly. Consider wearing a clear face covering, if possible. If you're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ask the person you're talking with to speak louder. If you lip-read, ask those you interact with regularly to wear a clear face covering.
- TURN DOWN THE BACKGROUND VOLUME**

Background noise can make conversation especially hard. When possible, move to a quieter spot or turn down the sound.
- COMMUNICATE ANOTHER WAY**

Use a smartphone talk-to-text application or writing tools (paper/pen, whiteboard) to communicate.*
- CONFIRM THAT YOUR STATEMENT IS CLEAR**

Ask if your message has been understood.
- BRING A FRIEND OR BE A FRIEND**

If it's essential that you comprehend important spoken details—during a discussion with a health care provider, for example—consider bringing a friend or family member with you. Or, offer to come along to listen and take notes when a friend has an important appointment or meeting.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https://www.nidcd.nih.gov>

<https://twitter.com/nidcd>

*Learn more from The Hearing Loss Association of America's **Face Masks and Hearing Loss: Practical Tips and Strategies**.

Traditional Korean Holiday of Bountiful Harvest, Chuseok

한국의 전통 명절,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추석'... 다양한 전통놀이 음식 즐겨요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is one of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holidays in Korea. Family members from near and far come together to share food and stories and to give thanks to their ancestors. In 2019, Chuseok Day falls on September 13. As the day before and the day after are also part of the holiday, this year's holiday period is from September 12 to 14.

Many Koreans visit their hometowns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The holiday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throughout Korea.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traditional Korean holiday of Chuseok.

The Meaning of Chuseok (Hangawi)

Chuseok is one of Korea's three major holidays, along with Seollal (Lunar New Year's Day) and Dano (the 5th day of the 5th lunar month). Chuseok is also referred to as hangawi. Han means "big" and gawi means "the ides of the 8th lunar month or autumn."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the harvest moon, the largest full moon of the year, appears on the 15th day of the eighth month.

Traditions and Customs of Chuseok

In the morning of the day of Chuseok, family members gather at their homes to hold memorial services called charye in honor of their ancestors. Formal charye services are held twice a year: during Seollal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During Chuseok's charye, freshly harvested rice, alcohol and songpyeon (half-moon rice cakes) are prepared as an offering to the family's ancestors. After the service, family members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to enjoy delicious food.

Another traditional custom of Chuseok is seongmyo, or visit to the ancestral graves. Seongmyo is an old tradition that is still carried out to show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family ancestors. During seongmyo, family members remove weeds that have grown around the graves and pay respect to the deceased with a simple memorial service.

Traditional Folk Games

As Chuseok is a celebration of harvest and abundance, the holiday period is made joyful with various entertainment and folk games such as samulnori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talchum (mask dance), ganggangsullae (Korean circle dance), and ssireum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Ganggangsullae is performed during Jeongwol Daeboreum (celebration of 15th day of the first lunar calendar) and Chuseok. In this dance, women dressed in hanbo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join hands in a large circle and sing together on the night of the first full moon and on Chuseok. There are several stories about its origin. One of the most well-known stories says that the dance dat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hen the Korean army used to dress the young women of the village in military uniforms and had them circle the mountains to give off the appearance that the Korean military was greater in number than it actually was from the enemy side. The Korean army enjoyed many victories thanks to this scare tactic. Ssireum, another significant traditional entertainment, is a one-on-one wrestling match that requires strength and skills held on a circular sand pit.

Chuseok Foods

A variety of foods are prepared during

Chuseok to celebrate the bountiful harvest of the year,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oods that represent Chuseok is songpyeon. Songpyeon is prepared with rice powder that is kneaded into a size that is a little smaller than a golf ball, and then filled with sesame seeds, beans, red beans, chestnuts, or other nutritious ingredients. During the steaming process, the rice cakes are layered with pine needles to add the delightful scent of pine. It is an old tradition for the entire family to make songpyeon together on the eve of

Chuseok. An old Korean anecdote says that the person who makes beautifully shaped songpyeon will meet a good spouse or give birth to a beautiful baby.

Other significant Chuseok foods include traditional liquor and jeon (Korean pancakes). Jeon are made by slicing fish, meat and vegetables and then lightly frying them in a batter of flour and eggs. They make a perfect pair with traditional Korean liqu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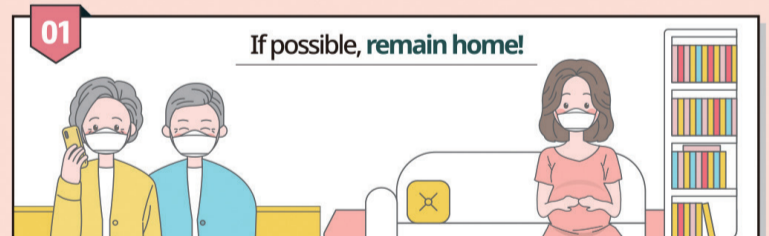
It's not as good as before due to the corona, but let foreigners enjoy a special Korean Chuseok holiday.



COVID-19 Response Guidelines, 9th Edition, Appendix 5:
GUIDANCE FOR PEOPLE IN HIGH-RISK GROUPS

Pregnant women, elderly aged 65 or above, and chronically ill patients* are more vulnerable to COVID-19 than others

*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include diabetes, heart failure,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asthma, chronic obstructive disease, kidney failure, and cancer



"Together, we stand resolute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다문화가족 외롭지 않도록 나누어 따뜻한 추석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 지역사회, 광명건가다가 후원



추석을 앞두고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에는 다문화가족과 나눔으로 따뜻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LH광명시흥사업본부, 생필품·방역물품 꾸러미 나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센터 1층 주차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광명시 내 지역경제 회복과 다문화가정 분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LH광명시흥사업본부

와 후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후원나눔’ 행사로 광명시 내 15가정 선착순 접수했으며 쌀 10kg과 생필품 외 코로나 방역물품 꾸러미를 나누어주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 자체 생산품 등 나눔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9월 24일 제24회 다문화가정 후원 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 6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협회 회원들의 자체 생산품인 세제, 손칼국수면, 양념, 빵, 찹쌀떡과 라면 등 880만원 상당이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에 물품을 후원해 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식품제조가공업협회와 다문화가정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후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물품 나눔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정부 4차 추경, 중학생도 15만원 학습지원금, 다문화가족도 해당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다.

중학생 이하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9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후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6~34세와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원은 10월 통신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자 통신비에서 일괄 차감한다. 이통 3사 휴대폰과 알뜰폰·선불폰은 감면 대상이나 법인폰은 제외된다. 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은 11월 요금에서 감면한다.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이전 해당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과기정통부 CS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관련 기사 5면, 중국어 21면, 베트남어 32면, 일본어 4면, 태국어 28면〉

이지은 기자

광명도시공사, 광명희망카는 2020년 추석 연휴에도 운영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광명희망카’)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접수를 통해 올 추석 명절 연휴에도 차량을 운행했다.

공사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접촉 최소화를 위해 광명희망카 사업장을 2개로 분리 운영했으며 차량 내 분리막 설치, 드라이브-스루형 소독방식 도입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김종석 사장은 “사회적 약자의 발이 되어 광명희망카 이용자를 위해 최상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광명을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대리운전,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내 5번째로 쉼터를 조성한다.

광명시는 도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추가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5층(철산동로 30번길 9)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 하남, 성남, 광주 등을 방문해 이동 노동자 쉼터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각 시설의 장점을 쉼터 조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역량강화 광명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 노력

광명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명시 젠더로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광명시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돌봄문화 등에 대해 4시간동안 진행됐다.

광명시는 그동안 토의를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며,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5일 동안 10개의 강의를 집중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김춘년 안전분과장은 “지역사회의 제반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을 제안해서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광명 다양한 가족, 교육과 체험으로 소통하며 코로나19 이겨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함께하는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소통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사진은 센터의 온라인 프로그램)

#초기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쌀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쌀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한국 입국 3년 미만인 초기 결혼이민자 15명 및 가족이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 법률, 육아 등 다방면 맞춤형 교육과 선배 이주민에게 듣는 정착 이야기 그리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키트 프로그램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나들이 프로그램까

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5일까지 받으며 사업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gmfc.familynet.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메일(gmfc79@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프로그램은 생활적응교육으로 '멘토 이주민 토크쇼'가 10월 14일과 11월 4일 진행되며 맞춤형 생활교육이 10월 7일과 10월 21일, 10월 28일, 11월 11일 운영될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문화체험은 키트체험으로 캘리그래피 체험(10월 16일), 전통매듭 체험(10월 23일), 고향 음식 요리체험(11월 6일)이 각각 진행된다. 외부나들이는 한국 민속촌 나들이(10월 31일), 안산 다문화 특구 나들이(11월 14일)가 각각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6265-1366)로 하면 된다.

#한국어 교육 '고급 말하기반'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고급 말하기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어 말하기 및 관용어 표현을 배울 기회로 수업 기간은 10월 6일 개강해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20회 진행한다.

대상자는 한국어 4단계 이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수업은 무료로 이뤄진다. 온라인 수업이며 수업신청은 전화(02-6265-1366)로 받는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충전 TIME'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충전 TIME'을 10월 13일과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가족충전 TIME'은 1회기 부모교육과 2회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부모교육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아이 키우기'란 주제로 줌 온라인 강의를 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압화 거울 조명 만들기가 줌 온라인 강의로 이뤄진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와 부모 10가구며 10월 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gmfc.familynet.or.kr)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gmfc79@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우리가족 홈 캠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온라인으로 즐기는 우리가족 홈 캠핑 2탄으로 '다문화가족 캠퍼스'를 진행한다.

부모-자녀 상황검사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와 아이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캠퍼스'는 부모 상담 및 교육이 10월 5일과 7일, 12일, 14일 총 4회에 걸쳐 나와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며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대상이다.

가족문화활동은 10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아크릴 조명 만들기가 진행되며, 가족문화활동 2는 가족이 함께 가능한 시간에 미니 에어하기 게임을 하면 된다. 활동사진은 필수다. 김영의 기자

< 초기정착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행복쌀기"

대상
한국 입국 3년 미만 결혼이민자 15명 및 가족

사업 기간
2020.10.7 ~ 2020.11.14

접수 방법
[센터 홈페이지(gmfc.familynet.or.kr) - 프로그램 안내]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메일(gmfc79@naver.com) 접수

접수 기간
2020.09.25(금) ~ 10.5(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 02-6265-1366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 우리 같이 공부 하자

한국어 고급 말하기반

10월 6일 개강

"한국어 말하기 및 관용어 표현 배울 수 있는 기회!"

수업기간 10월 6일 ~ 12월 10일 매주 화, 목 13-15시 (총 20회)	대상자 한국어 4단계 이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수업신청 전화 02-6265-1366 담당자 장원희 *센터방문시 사전전화 필수
수업비 무료 (교재비 별도)	수업방식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센터수업으로 변동 가능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충전 TIME

코로나19로 지친 우리가족 마음충전!

1회기 '부모교육' 일시 : 2020.10.13(화) 10:00-12:00 주제 :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아이 키우기 방식 : 줌(ZOOM) 온라인 강의	2회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일시 : 2020.10.15(목) 15:00-16:30 *10.14(수) 센터방문 키트수령 내용 : 압화 거울조명 만들기 방식 : 줌(ZOOM) 온라인 강의
---	---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족

준비사항 : 줌(ZOOM) 사용가능한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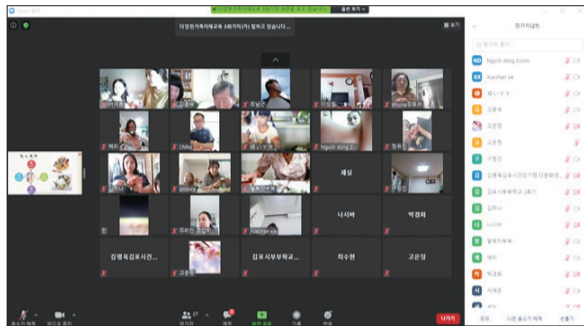
신청기간 : 9.24.(목) ~ 10.8.(목)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 접속(www.gmfc.familynet.or.kr)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gmfc79@naver.com)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02.6265.1366

"꽃보다 아름다운 김포 부부의 리마인드웨딩"

김포건가다가, 온라인 자조모임. 부부여가문화체험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다문화 비다문화부부 30쌍을 대상으로 2020 경기도, 김포시 행복한가족 프로그램 '꽃보다 아름다운 부부, 리마인드웨딩' 자조모임 및 부부 여가문화체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가족의 부부 적응을 돕고, 부부 자신과 배우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며 부부 친밀감과 개인 및 집단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건전한 여가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날 교육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화상회의 서비스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및 활동 키트 배부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교육내용은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족애(愛)와 부부역사 희·노·애락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부연대기, 함께 살아가는 여정, 부부-수직관계/수평관계, 예술놀이를 통한 부부표현법, 의사소통법, 부부 화관 만들기를 통한 두 번째 프로포즈 의식 놀이활동 ▲민주시민부부, 성평등, 문화평등 실천하기 선언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부부역사를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화관도 직접 만들어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보는 리마인드웨딩 활동을 경험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 경기도 김포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10월에도 중노년기부부, 신혼기부부, 미혼남녀대상 비대면 온라인 및 키트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센터홈페이지 (gimpo.familynet.or.kr) 및 전화접수(031-996-5923 가족사업2팀)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희망일자리'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력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속에서 구원 등판한 희망일자리가 답답한 취업시장의 숨통을 트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취업자는 1,627명으로 6월 이후 3개월 째 꾸준히 상승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월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7월 6,084명에서 5,914명으로 줄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고공행진을 멈추고 전월 101억 7,700만 원에서 94억 7,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는 7월 28,173개에서 26,853개로 줄었고, 피보험자 수는 100,836명에서 102,031명으로 늘어 고용안정망은 다소 강화됐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생활방역지원, 학교길스쿨존 지킴이 사업,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10개 유형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8월 1차에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자 등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1,454명, 9월 2차에 1,165명을 추가 배치해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현재 2,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풍무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신기한 메이커의 세상' 진행

메이커스페이스를 특성화 주제로 운영 중인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특성화 문화프로그램으로 '신기한 메이커의 세상' 강좌를 진행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신기한 4차 산업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프로젝터 만들기, 소리감지 LED 스피커 만들기, 센서 강아지 자동차 만들기, 자율 안전주행 로봇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특성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메이커 문화의 중심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11일, 25일(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일, 26일(월)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9월 28일(월)부터 관내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풍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지며 한 사람 당 1개의 강좌만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www.gimpo.go.kr/pungmu/index.do)를 참고하거나 풍무도서관(☎5186-48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전통 윷놀이를 통해 엄마나라의 말을 배워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육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대상자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실질적인 놀이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대상자 가정의 자녀와 어머니에게 한국 명절 전통놀이인 '윷놀이' 방법과 윷놀이에 사용되는 말 '도,

개, 걸, 윷, 모'를 4개 국어로 알려주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강사들이 각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모인 어머니와 자녀에게 직접 윷놀이와 관련된 동물의 이름인 '돼지, 소, 강아지, 말, 양'의 언어를 읽어주고, 반복해서 따라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는 "평소 남편에게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아이에게 이중언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실제로 교육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엄마 나라의 말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내 나라의 말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추석 선물'"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이중언어를 자녀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욕구는 높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중언어 교육은 효과가 미미해진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상시 진행되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FULL LIFE
GIMPO
Việt Nam

HƯỚNG DẪN SINH HOẠ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GIMPO

Guide For Foreigners
in Gimpo City



김포시

DANH MỤC ĐĂNG KÍ CƯ TRÚ

- ✓ Khai báo chuyển đổi nơi cư trú và ngày xác nhận**
 - Khai báo chuyển đổi nơi cư trú
Trong vòng 14 ngày kể từ ngày chuyển nhà, bạn có thể đến Văn Phòng Dân Sự của UBND Thành Phố GIMPO hoặc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Ấp, Xã, Phường trực thuộc nơi cư trú hoặc khai báo qua mạng theo www.hikorea.go.kr
 - Ngày xác nhận
Mang theo thẻ cư trú, hợp đồng nhà bản gốc đến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trực thuộc nơi cư trú hoặc đến văn phòng đăng kí cư trú
- ✓ Di chuyển khí gas thành phố và cắt điện / thanh toán hoàn tất phí quản lí và phí tiện ích**
 - Điện _Điện lực Hàn Quốc ☎ 123
 - Gas thành phố _Công ty khí GAS thành phố Chi nhánh Gimpo Chi nhánh ☎ 031-984-8008
 - Nước tiêu dùng _Nhà máy nước thành phố Gimpo ☎ 031-980-5113
 - Báo d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giao chuyển hàng thường xuyên và thanh toán tự động
- ✓ Thay đổi nơi cư trú**
 - Yêu cầu di chuyển Internet, điện thoại máy bàn, cáp truyền hình
 - Đăng kí dịch vụ chuyển đổi địa chỉ bưu phẩm, thư
Đăng kí internet bưu điện : www.epost.go.kr
 - Báo chuyển đổi địa chỉ cho ngân hàng, thẻ tín dụng thay đổi bằng địa chỉ công ty
Thay đổi địa chỉ qua dịch vụ một lần nhập : www.ktmoving.com
 - Các loại thuế và thuế ô tô(bao gồm cả xe hai bánh) được tự động chuyển đổi.
Tuy nhiê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khai báo theo cá nhân.
- ✓ Liên hệ chuyển trường**
 - Văn phòng hỗ trợ giáo dục Gimpo ☎ 031-980-1125

CƠ QUAN CÔNG CỘNG

▪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PHÂN BIỆT	ĐỊA CHỈ	SỐ ĐIỆN THOẠI	PHÂN BIỆT	ĐỊA CHỈ	SỐ ĐIỆN THOẠI
Tongjin-eup	24-11, Gimpo-daero 2250 beon-gil	980-5303	Janggibon-dong	1433, Gimpo-daero	980-5235
Gochon-eup	14, Jangcha-ro	980-5265	Sau-dong	51, Dalmun-ro	980-5243
Yangchon-eup	37, Yanggok 1-ro 68beon-gil	980-5288	Pungmu-dong	74, Pungmu-ro	980-5384
Daegot-myeon	83-23, Yulsaeng-ro	980-5328	Janggi-dong	112, Gimpo-hangang 2-ro	980-5971
Wolgot-myeon	263, Gunha-ro	980-5348	Gurae-dong	25, Gimpo-hangang 9-ro 115 beon-gil	980-5833
Haseong-myeon	845, Aegibong-ro	980-5367	Masan-dong	432, Gimpo-hangang 3-ro	5186-3153
Gimpo bon-dong	13, bukbyeon 1-ro	980-5202	Unyang-dong	32, Modamgongwon-ro	980-5812

- Trạm y tế Gimpo_108, Saujung-ro, Sau-dong ☎ 031-980-5011
- Sở cảnh sát Gimpo_65, Taejang-ro 795beon-gil, Janggi-dong ☎ 031-950-2324
- Trạm cứu hỏa Gimpo_111, Gamam-ro, Geolpo-dong ☎ 1666-1190
- Văn phòng thuế Gimpo_22, Gimpo-hangang 1-ro, Janggi-dong ☎ 031-980-3200

THÔNG TIN CUỘC SỐNG

Tuyến Đường Vàng Gimpo (Đường Sắt Gimpo)
Yangchon - Gurae - Masan - Janggi - Unyang - Geolpo / Bukbyeon - Sau (UBND TP GIMPO) - Pungmu - Gochon - Sân bay Gimpo

Làm sạch thành phố Gimpo

- Thời gian xử lý rác thải sinh hoạt ☎ Các ngày trong tuần và Chủ nhật 20giờ ~ 24giờ
※ Xin đừng vứt rác vào ngày thứ bảy (vào ngày chủ nhật nhân viên thu gom rác thải không làm việc)
- Cách xử lý rác thải gia đình
sử dụng túi đựng rác theo quy định (có thể mua ở siêu thị)
※ Hình phạt khi vứt rác sai quy định : Nếu bạn xả rác sai quy định thì sẽ bị phạt tiền từ 1 triệu won trở xuống.
- Rác thải ngoại cỡ
Đăng kí xử lí rác thải trả phí qua internet hoặc mua tem dán xử lý rác thải ▶ Liên hệ cho công ty thu gom rác thải ▶ Dán tem xử lý rác thải sau đó chuyển rác đến nơi vứt quy định

Công Ty Thu Gom Rác Thải	Số điện thoại	Khu vực thu gom
(주)상인	031-989-9061	Yangchon-eup, Janggi-dong, Unyang-dong, Janggibon-dong, Gurae-dong, Masan-dong
(주)우림	031-989-9268	Sau-dong
부일환경(주)	031-982-2241	Gimpobon-dong (Bukbyeon-dong, Geolpo-dong, Gamjeong-dong)
(주)선경에코텍	031-987-6033	Tongjin-eup, Daegot-myeon, Wolgot-myeon, Haseong-myeon
(주)세일환경	031-987-0543	Gochon-eup
제일환경(주)	031-997-2771	Pungmu-dong

- Thu gom miễn phí rác thải thiết bị gia dụng ☎ 1599-0903

Thuế địa phương ☎ 1644-8704

- Các loại thuế địa phương : thuế cư trú, thuế ô tô, thuế tài sản, v.v.
※ Nghĩa vụ đóng thuế cư trú 11.000 won sau 1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í tư cách cư trú người nước ngoài (ngày 1 tháng 7)



-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HÀNH PHỐ GIMPO ☎ 031-986-7660
 -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 CƠ QUAN ĐỐI NGOẠI INCHOEN CHI NHÁNH GIMPO ☎ 1345 52, Hwanggeum-ro 110 beon-gil,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
- TRUNG TÂM GIA ĐÌNH KHỎE MẠNH ·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GIMPO ☎ 031-996-5920 | 564, Gimpo Hangang4-ro, Gimpo-si, Gyeonggi-do (Gurae-dong, trong tòa chung cư LH 2 Han garam)
- UBND TP GIMPO ☎ 031-980-2114 | 1, Saujung-ro, Gimpo-si, Gyeonggi-do

TRUNG TÂM CƠ SỞ TIỆN ÍCH

Không gian văn hóa

- Làng nghệ thuật Gimpo (làng Hanok Gimpo) ☎ 170, Modamgongwon-ro, Unyang-dong ☎ 031-996-6836
- Hội trường nghệ thuật Gimpo, Trung tâm dân sự Gimpo, Trung tâm văn hóa Tongjin Dure, Trung tâm sinh hoạt văn hóa Wolgot, trung tâm văn hóa hòa bình Gimpo v.v.

Công viên

- Ara Marina ☎ 74, Arayuk-ro 270 beon-gil, Gochon-eup
- Công viên trung tâm Geolpo ☎ 1550-2, Geolpo-dong
- Công viên gia đình Taesan ☎ 585, Haseong-ro, Haseong-myeon
- Công viên điêu khắc quốc tế Gimpo ☎ 38, Yonggang-ro 13 beon-gil, Wolgot-myeon
- Công viên sinh thái ☎ 455, Gimpo Hangang11-ro, Unyang-dong
- Công viên hamsang Gimpo ☎ 110-36, Daemyeonghang 1-ro, Daegot-myeon
- Công viên trung tâm Hangang ☎ 40, chodang-ro, Janggi-dong
- Công viên hangang sindosi hosu ☎ 617-2, Masan-dong

Thư viện

- Thư viện Janggi ☎ 42, Gimpo Hangang 2-ro, Janggi-dong ☎ 031-5186-4680
- Thư viện Jungbong ☎ 26, Bonghwa-ro 130 beon-gil, Bukbyeon-dong ☎ 031-5186-4800
- Thư viện Yanggok ☎ 40, Yanggok 4-ro 197 beon-gil, Yangchon-eup ☎ 031-5186-4830
- Thư viện Gochon ☎ 14, Jangcha-ro, Gochon-eup ☎ 031-5186-4850
- Thư viện Pungmu ☎ 101, Pungmu-ro 146beon-gil, Pungmu-dong ☎ 031-5186-4870
- Thư viện Tongjin ☎ 132, Jogang-ro, Tongjin-eup ☎ 031-996-0750
- Thư viện sách tỉnh Gyeonggi Gimpo ☎ 68, Bonghwa-ro, Sau-dong ☎ 031-984-3536
- Thư viện nhỏ _Nuri Bom, Daegot, Gurae, Unyang, Smart (Gurae Station, Sau Station)
Có thể mượn· đọc sách đa văn hóa (※ ngoại trừ thư viện nhỏ)

Trung tâm y tế khẩn cấp khu vực

- Bệnh viện Gimpo Woori ☎ 11, Gamam-ro, Geolpo-dong ☎ 031-999-1000
- Bệnh viện New Korea ☎ 283, Gimpo Hangang 3-ro, Janggi-dong ☎ 031-980-9114

THÀNH PHỐ GIMPO HỢP TÁC VỚI CÔNG DÂN

xin vui lòng gửi ý kiến thông qua bảng thông báo ý kiến điện tử www.gimpo.go.kr và bảng tham gia ý kiến công dân.

- Gimpo SNS
- 📧 @gimpomaru
 - 🌐 <http://blog.gimpo.go.kr>
 - 📘 facebook.com/gimpocitykr
 - 📧 e-gimpomaru.gimpo.go.kr

사회적 거리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대면&비대면 '2020 한가위 축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별 추석 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김포시 다양한 가족들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2020 한가위 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서비스 '줌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함께 가족역량강화 대상자 중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자녀를 초대하여 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문화가정과 직원, 회원, 민관학 관계자 등 김포시 관내 320여 가구에 일주일 간 추석키트(송편 만들기, 쌀국수, 월병)와 놀이키트를

배분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온라인으로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추석 그리고 필리핀의 추수감사절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 내 다문화 강사 4명(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김연화 센터장이 전통·현대식 차례상 차리기, 한복 입기, 추석음식 및 놀이 등 한국의 추석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정말숙 강사의 송편 만들기 교육도 진행됐다.

센터 내 결혼이주여성 요리 동아리 '내 친구 고향음식' 구성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돼지갈비찜과 월병을 다문화가

정 한부모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놀이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는 윷판을 제작하여 윷놀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포복지재단, 김포사랑운동본부, 레이디앤맘, 대한적십자사 김포지부협의회에서 후원한 후원금품도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A씨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명절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베트남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며 "코로나19로 아이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윷놀이를 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줌으로 교육에 참여한 B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사회의 추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각 가정에서도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인 명절 차례와 가족행사에 대해 전통과 현대의 방식을 살펴보고 가치관과 종교, 경제적, 시간적 상황 등을 고려해 행복하고 함께 나누는 명절문화, 가족행사를 가꾸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한 와중에도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 60가정, 약 240여명이 ZOOM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로 호평을 얻었다.

이지은 기자



2020년도 한국어교육 온라인수업

반 이름	채널이름	강의 일자	강사	교재
센터한국어1		매주 월,수 10:00~11:00	안월순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센터한국어2		매주 화,목 10:00~11:00	정춘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
센터한국어3	카카오TV '김포건가'	매주 화,목 13:00~14:00	이정화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센터한국어4		매주 월,수 13:00~14:00	심인규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주말반		매주 토 10:00~12:00	이한형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대곶반		매주 화 10:00~12:00	조미경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양촌반	카카오TV '김포시 건가다가'	매주 금 10:00~12:00	유경숙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중급1
평생학습관반		매주 목 10:00~12:00	김애경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다가온반		매주 월 10:00~12:00	유경숙	

· 대 상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 수강방법 : KAKAO TV
 · 비 용 : 수강료 무료 (교재비 별도)
 원할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재 구입을 추천합니다(개인구매)
 · 문 의 : 031)996-5920 (건강가정사 신유림)



COVID-19 Response Guidelines, 9th Edition, Appendix 5: '10 Guidelines for Teens with Symptoms'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please keep **People 10 guid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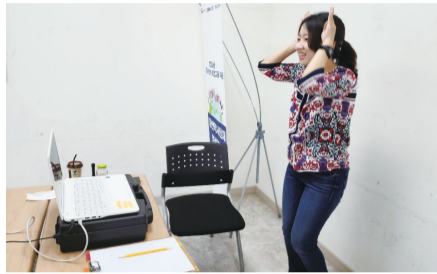
***Major symptoms of COVID-19**
 fever (37.5°C/99.5°F or higher), cough, difficulty breathing, chills, muscle aches, sore throat, loss of taste and smell, and pneumonia

- 1 Do not go to school or work and avoid going out; stay home and rest.
- 2 When making medical appointments, notify your healthcare provider that you are showing clinical symptoms of COVID-19.
- 3 Monitor if clinical symptoms persist or get worse.
- 4 If fever persists or symptoms worsen,
 - ① Dial the KCDC Call Center at (1333, local area code + 120) or your local health center for inquiries
 - ② Visit a screening clinic and have a health care provider look at you
- 5 Use a personal vehicle and wear a facemask when visiting a healthcare facility.
- 6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 7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or a tissue when coughing or sneezing.
- 8 Isolate your living space. Always maintain a distance of 2m from family or roommates you live with.
- 9 Do not share your personal items with others. Use separate towels, tableware, and cellphones.
- 10 Clean and disinfect frequently touched surfaces daily.

"Together, we stand resolute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다문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다문화교육"

과천건가다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진행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진행하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및 다문화친화교육인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지난 8월 19일부터 총 19회기에 걸쳐 지역 내 아동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지난 6월부터 지역 아동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아 8월 19일부터 신청한 아동기관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8~9월 2개월 동안 5회기 진행하였고 본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활동키트

수령 및 프로그램 진행 모든 과정은 비대면 줌(zoom)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이음사업 수업에서는 실제 한국에서 다문화가족(국적 대만)으로 사는 강사가 직접 커리큘럼을 계획한 것으로 강의를 진행해 다른 나라 인사말과 언어, 전통의상, 전통음식, 대만 동요를 실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가 친구임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이음 사업 강사로 참여한 다문화 강사는 "강의 시간 중에는 특별히 아

동들이 일부 앞으로 나와 다문화 강사와 직접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것 같다"라며 "대만 동요를 따라 부르는 시간에는 강의를 듣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한 어린이집은 교육이 끝난 뒤 만족도 조사를 하였고 대체로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고 의미 있었다, 권하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강의를 진행한 강사도 의미 있는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11월 신청한 지역 아동유관기관과 다문화강사 시간에 따라 14회기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아동들이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지난 9월 24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김성한 과천경찰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와 가족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천시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비전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단계별 심리검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과천경찰서는 과천시의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 발생 가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10월 프로그램 계획

○ 센터 명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2-503-0070)

사업명	일시	접수기간	대상	인원	내용	비고 (사업구분)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소행성"	10월~11월	수시	관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1회/20명	· 지역 내 학교, 관공서 등 연계 기관 모집 · 성교육 강의, 성폭력 예방 인형극, 성교육 체험 버스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플로이	10월~12월	수시	관내 유아동 및 부모	10그룹/3가정 이상	· 가족플로이 그룹 회원 모집 (활동 : 유아, 놀이, 학습 플로이 신체모임, 전체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축제	10월 10일	9/28~10/5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가족	-	· 다양한 가족체험활동 - 체험KIT, 영상참여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패키지	10월~11월	9월	결혼이민자	7명	· 디지털 환경속 한국 정착 점검 및 미래계획, 1인 방송의 이해,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영상제작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다문화서포터즈	연중	수시	과천시 거주 결혼이민자	20명	· 결혼이민자 지원(신규 회원 발굴, 센터프로그램 이용 및 생활지원, 서포터즈 간담회, 운영위원회)	가족생활	
한국어교육	연중	수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각빈별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인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	가족생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연중	접수완료	다문화가정 자녀 5세~9세	3명	·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도	가족돌봄	
방문학습지 지원	9월~12월	접수완료	다문화가정 자녀 6세~9세	8명	· 한글 및 국어 대교는놀이학습 지원	가족생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제 · 종일제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통한 양육 지원 -시간제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종일제 이용시간: (기본)1회 3시간 이상	-
	학습 돌봄	연중	수시	과천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6학년)	-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돌봄 활동가의 초등학생 전 과목 학습 지원	-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만 12세 이하 질병아동 및 시설아동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

02-503-0070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별별 유튜버 도전기

10/13(화)~11/12(목), 화 목 10:00~11:30



- 모집대상** 한국 거주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7명
- 모집기간** 9월 21일(월)~ 10월 5일(월)
- 신청방법** 홈페이지, 다문화가족밴드, 전화
- 장 소** 참여자 가정
- 참 가 비** 무료 (개인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준비)
- 문 의** 02 503 0070(담당자 최은정)

“희귀병 걸린 예림이 돕기 위해 안양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사랑공동체 후원금 전달식 및 업무 협약식 가져

5년 전, 예림(가명)이는 학교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길을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일도 잦아져 병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예림이의 혈액을 보냈고 ‘폐쇄병’과 비슷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그즈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예림이의 어머니는 홀로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와 예림이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 역시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지금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다.

폐쇄병은 당원이 축적되어 생기는 희귀성 질환으로, 몸의 에너지 원천인 당원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것이 원인이다.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과도한 양의 당원이 여러 세포, 특히 근육세포에 축적되는데 그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며 근육이 약해진다.

특히 심장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호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예림이는 매일 밤, 숨쉬기가 어려

워 앉아서 잠을 청해야만 했다. 꾸준히 치료를 받는 지금도 잠을 잘 때 호흡이 어려워지면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예림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국내에 43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림이는 한 달에 2번 병원에서 폐쇄병 환자들에게 부족한 효소제인 마이오자임을 5시간 동안 투약한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날은 예림이의 어머니와 예림이 모두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치료에 매달려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5일간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주사를 맞지 못했던 예림이는 이로 인해 활체가 없어지는 일어설 수 없었고, 24시간 내내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예림이는 꾸준히 치료받지 않으면 잠을 거의 못 자고, 음식을 먹은 것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근육 및 간, 심장,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매일 2회 병원에 방문하며 발생하는 약 16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은 가족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 됐다.

예림이 어머니는 올해 1월, 코로나 사태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실직한 후 현재 집에서 예림이와 예림이 동생을 돌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예림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단법인 다사랑공동

체(대표 성재호)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에 예림이 사연을 올리고 13,325,700원에 달하는 모금에 나섰다.

이 금액은 예림이의 9개월분 의료비와 예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이 모금 목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됐고 다사랑공동체는 지난 9월 18일 이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에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사진 가운데) 이 행사에는 예림이와 예림이 엄마도 참석했다.

성재호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며 “예림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서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사랑공동체가 귀한 일을 해주셨다”며 “예림이를 위해 해주신 많은 노력과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 후에는 다사랑공동체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업무협약식이 체결돼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사진 오른쪽)

송하성 기자



안양시, 양육부담 덜기 다문화가족 포함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가 지원된다.

안양시는(시장 최대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해 주고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청년생활방역지킴이’가 25일 발대해 오는 11월까지 하루 5시간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안양시의 청년생활방역지킴이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 임무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위한 계도활동이다.

이들은 4인1조 6개 팀으로 편성, 안양역과 범계역, 중앙·남부·관양시장 등 전통시장 4개 지역에서 방역수칙 유인물과 소독용 티슈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방역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된다.

마스크착용에 대한 거리지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방역단계별 수칙을 알려나가는 것 또한 이들의 몫이다.

이지은 기자

"4가지 이중언어 프로그램, 더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어요"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글로벌 아이, 행복한 가족'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2020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글로벌 아이, 행복한 가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 진입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인 엄마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국인 남편 등 내국인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게 낫다'거나 '굳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찾지 못하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이 인지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 부모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이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어와 함께 이주부모나라 언어의 사용을 일상화함으로써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등의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1차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 6월부터 진행된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다.

1-3차 각 10회기에 걸쳐 0~4세와 5-7세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놀이 등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부모코칭은 1-2차 각 5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부모 5명씩을 대상으로 가족 역할 교육과 더불어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은 7회기에 걸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이중언어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코칭은 월 5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일부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가 지배하는 단일 언어가족과 다를 바 없어 언어문화환경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언어-문화가족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언어는 양육자의 모국어를 사용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실행을 도모하고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이중언어-문화가족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从10月开始不论居住期限, 向道内所有家庭扩大支援产后调理费



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住权的外国人也可以得到每名新生儿50万韩元的地区货币。

从10月15日开始,在京畿道生育时,不管居住期间如何,每个新生儿将获得50万韩元的产后调理费,作为地区货币进行支援。

为此,京畿道于今年7月15日修订了《京畿道产后调养费支援条例》,删除了以前选定标准的“京畿道居住1年以上条件”。

特别是根据《社会保障基本法》与保健福利部推进社会保障制度变更协议,本月9日保健福利部承认有必要放宽居住期间条件,向全体生育家庭扩大支援。

至此,京畿道将实现“普遍无偿福利”,向所有生育家庭无条件支付每名新生儿50万韩元的产后调理费。

支援对象为父或母▲婴儿的出生日期及申请日要在

京畿道登记居民登记▲申请日期要在京畿道居住▲截至申请日婴儿的出生日期不得超过12个月▲必须在京畿道登记出生,父母中必须有一人拥有韩国国籍居民登记)。

多文化家庭的外国人及永久居住权者,将改用外国人登记事实证明。

夫妻均为外国人或配偶难以确认的情况▲生育者的滞留资格是F-5(永驻)▲出生日期及申请日期是在京畿道居住▲需要满足婴儿的出生申请日期是不能超过12个月的条件等。

申请方法无需事前申请等程序,在出生申报时访问居住邑、面、洞居民中心即可。产后调理费通过资格确认等程序,以地区货币(商品券或卡或移动型)支付。

尤其是多胎儿,根据新生儿数以50万韩元的倍数支付,可与产妇、新生儿健康管理支援及分娩补助领取权者重复支付。产后调理费支援事业是民选7期京畿道为缓解生育家庭的经济负担、保护产妇、新生儿健康及克服低出生率而推进的事业。

京畿道从去年1月1日开始该事业到今年7月末为止,共向约12万生育家庭支付了589亿韩元。

京畿道相关负责人表示“此次扩大产后调理费支援事业是为了实现‘适合生育的京畿道’的措施”,“预计通过这一措施,将有约9000名左右的新生儿家庭得到更多的支援”。<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멘토링으로 또 한번 성장 다문화가족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초등기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은 1-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에게는 1:1 온라인 읽기 학습지도, 부모에게는 온라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읽기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높이며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 및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법을 개발해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1 온라인 학습지도는 1:1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으로 대학생 봉사자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부모교육은 강사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27일 센터 강당에서 소규모로 외국인주민 추석행사를 진행했다.

센터 측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로 추석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작게 진행했다.

참가자들 모두 코로나 7대 예방수칙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외국인주민들은 이날 민속놀이, 한복체험, 마스크와 송편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오전 11시와 11시 30분 2회로 나누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민속놀이와 한복체험을 처음 해봤다”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추석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석 송편 만들기과 한복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추석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의 절기 중 하나인 추석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송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복지 컨트롤타워로 22일 발기인 창립 총회 11월 2일 출범

화성시가 사회복지재단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민복지서비스에 나섰다.

화성시는 22일 시청에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재산출연,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시민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화성시는 올해 15억, 내년 15억 원을 출연해 기본재산 총 30억 원을 조성하고 경영지원팀, 연구기획팀, 시설운영팀 총 3개 팀 15명으로 조직을 꾸릴 계획이며, 출범은 7명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운영 ▲민간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 민관협력사업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 ▲조사연구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관내 복지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은 높아지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화성시는 복지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화성시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기인에는 복지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재단은 내달 설립등기 후 오는 11월 2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เงินอุดหนุนต่างๆที่รัฐบาล,ต้องรับการสมัคร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จอง

กองทุนความหวังใหม่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การดูแลเด็กพิเศษ,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ฯลฯ

รัฐบาล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เงินอุดหนุนสำ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จ้างพิเศษ) ฟรีแลนซ์และนโยบายคือการให้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ดูแลเด็กโดยเร็วที่สุ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นี้จะจ่ายตามลำดับการสมัคร ดังนั้นผู้ที่สมัครก่อนจะได้รับก่อนดัง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จองต้องรับสมัคร

วิธี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เป็นวิธีการที่รัฐบาลส่งข้อความไปยังเป้าหมายที่จัดประเภทโดยใช้ข้อมูล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บุคคลเป้าหมายจะ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ฝากเงินให้เร็วที่สุดเท่าที่จะทำได้ทันทีที่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 เป็นวิธีการจ่ายเงินให้กับผู้ที่สมัครก่อน แต่มีการกำหนด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ขนาดของใบสมัครแล้วดังนั้นจึงไม่มีทางที่คุณจะไม่ได้รับเงินสำหรับการสมัครสาขา

เงินอุดหนุน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พนักงานพิเศษ

ธุรกิจแรกที่ต้องจ่ายคือ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นี่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จ่ายเงินเพิ่มอีก 500,000 วอนถึง 500,000 คนงานและฟรีแลนซ์ที่ได้รั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ก่อนแรกและจะ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วันที่ 24 มี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จองจำนวนมากที่ทำงานเป็นลูกจ้างพิเศษซึ่งคาดว่า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ป็นอย่างดี

รัฐบาลได้มีการลง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เป้าหมายที่เงินอุดหนุนแรกที่

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จึ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ฝากเงินอุดหนุนทันทีหลังจากที่ยืนยันความตั้งใจที่จะนำไปใช้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ได้ส่งข้อความถึงพวกเขาเมื่อวันที่ 18 กันยายน

และยังคงเปิดรับสมัครจนถึงวันนั้นพวกเขาไม่ต้องการการคัดกรองแยกต่างหากดังนั้นพวกเขาจึง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อนวันหยุดเทศกาลชูช็อก

ในบรรดาฟรีแลนซ์ที่ยังไม่ได้รับทุนครั้งแรกจะ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ผู้สมัครใหม่ 200,000 คนสำหรับทุนครั้งที่สอง และจะ

ได้รับเงิน 1.5 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 โปรแกรมใหม่สำห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ที่สอ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ใน 12-23 ตุลาคม รัฐบาล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อุดห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หลังจากที่ยืนยันสถานะของ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รายได้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กลุ่มเสี่ยง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50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และกลุ่มเสี่ยงจะได้รับเงินตั้งแต่วันที่ 29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อเยาวชนที่ว่างงานที่

เข้าร่วมใน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ของเยาวชน หรือโครงการชุดความสำเร็จ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นปีที่แล้วและปีนี้

ข้อความถูกส่งไปยังผู้สมัครรายแรกในวันที่ 23 จนถึงวันที่ 24 ตุลาคม จะรวมอยู่ในใบสมัคร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ที่เข้าร่วม

โครงการชุดความสำเร็จ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บสมัครสา

หรับตำแหน่งที่ 1 และ 2 รวมถึงผู้ที่ยังไม่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ารเลื่อนตำแหน่ง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ที่มีอยู่จะได้รับในวันที่

ที่ 24-25 กันยายน และ รับใบสมัครสำหรับตำแหน่งที่ 3 ในวันที่ 12-24 ตุลาคม

ยอดขายที่ลดลง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สำ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หวังว่ากองทุนใหม่ซึ่งมีถึง 2 ล้านวอนให้กั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มียอดขายลดลงเริ่มที่จะได้รับเงินในวันที่ 25 กันยายน

ผู้ที่มีสิทธิ์ชำระเงิน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ช็อกจะได้รับแจ้งทางข้อความตั้งแต่วันที่ 23 และจะ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ตั้ง

แต่วันที่ 24 และชำระเงินตั้งแต่วันที่ 25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บนเว็บไซต์ออนไลน์เฉพาะตั้งแต่วันที่ 24 กันยายน คุณจะต้องป้อน

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เช่นหมายเลขธุรกิจและหมายเลขบัญชีโดยไม่ต้องมีเอกสารประกอบเพิ่มเติ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คุณต้องเตรียม

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หรือใบรับรองสาธารณะในชื่อของ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ตัวเอง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ป็นพิเศษที่ไม่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ครั้งแรก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ช็อกจะได้รับชำระทันทีหลังจากเทศกาลชูช็อก

<한글 기사 5면> 이아리 기자

당신의 평생학습 이야기 보여주세요

화성시 온-라이브 평생학습박람회 사용 공모전

화성시가 ‘제9회 화성시 온-라이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유튜브 주제영상 공모전 "요즘 당신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보여주세요"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들도 평생학습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하면 어떨까?

화성시는 공모전 주제 ‘요즘 나의 평생학습 이야기’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에 담아낸 주제영상을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5일 18시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영상을 첨부해 이메일 (smart2018@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기준은 서류 충실도, 주제 관련도,

흥미도, 독창성, 유의미성 5개 항목이며, 최고득점 3개 팀을 선발해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상은 화성시 온-라이브 평생학습박람회 골방전시회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서 송출된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도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꽃피워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u-life.hscity.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올 추석엔 온라인으로 성묘하세요"

화성시, 10월 4일까지 추모공원 폐쇄한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올 추석 연휴기간동안 ‘화성시추모공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폐쇄기간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이며, 참배 및 성묘는 금지되고 신규 안치만 허용된다.

화성시는 대신 연휴를 피해 미리 성묘하거나 온라인 성묘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이용객이 집중

되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선의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성 시민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성시추모공원은 화성시 비봉면에 소재해 실내 7,997기, 실외 2,011기 규모로 지난해 추석연휴동안 약 3만명의 성묘객이 방문했다.

이지은 기자

건강간식 배달로 취약계층 영양관리

화성시, 재활치료 어르신 25명 11월까지 배달

화성시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챙기기에 나섰다.

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가 운영 중인 월 2회 치매예방 교구 대여서비스에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양정보와 건강간식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중풍, 치매 등으로 재활치료 중인 어르신 25명이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안전가이드, 고혈압 식사 원칙 등 다양한 영양정보와

보건소 영양사가 직접 만든 불고기 또띠아를, 시니어 두유, 콧감호두말이, 그린요거트, 카프레제 샐러드, 야채 칩 등이 제공된다.

심정식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비대면 건강간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휴관으로 인한 주민보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다가에 긴급 생활용품 지원

광해공단 경인지사, 화성 다문화가족 후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지사장 박종선)는 지난 9월 18일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2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용품 부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박종선 경인지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힘든 추석 명절을 보낼 다문화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마을자치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화성시, 10월 5~12일, 다문화 등 10개 강좌



▲주민자치의 의미 ▲주민자치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자치생태계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 등으로 구성돼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지난 9월 28일까지 화성시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www.hsmael.or.kr)에서 받았다.

5개 이상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오는 연말 진행 예정인 심화교육의 수강기회도 주어진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화성시 마을자치활동가양성과정’이 오는 10월에 온라인 비대면 강좌로 문을 연다.

이번 교육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10월 5~12일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준비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화성시 마을자치의 이해 ▲청소년이 그리는 협치마을공동체 ▲시장, 다문화, 어린이, 촘촘히 엮는 지역 돌봄 ▲이웃간 봉사활동을 적용하는 동네화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형태와 지역정치

송문호 화성시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준비한 비대면 강좌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하는 화성시마을자치센터는 화성시로부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무를 위탁받아 마을공동체 조직화 지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마을활동가 육성,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활동가 역량강화, 화성형 농어촌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



韩国入境人员 隔离注意事项

根据《关于预防和管理传染病的法律》，为防止新冠肺炎疫情扩散，自入境日至第14天12时，您必须接受隔离。（*关于设施隔离的详情将由个别隔离设施另行通报）
(例如：6月1日入境者须从入境日至6月15日12时接受居家隔离。)

抵达机场后注意事项

- 短期滞留的外国人须在韩国政府指定的设施内接受隔离。(自费)
 - 短期滞留外国人在入境日期起三天内接受检测，通过仁川机场入境国内的人员从上午9点至下午7点可在开放型选别诊所接受检测，从下午7点至上午9点可在临时生活设施接受检测。
- 免隔离对象*在接受检测后，接受所在地保健所14天的健康管理(主动监视)。
 - *免隔离对象：持有A1(外交)、A2(公务)签证，或获得韩国大使馆开具的“隔离免除书”者
- 长期滞留外国人须接受居家隔离，并在入境后三天内接受检测。
 - *将根据检测结果采取相应的措施。
- 必须佩戴口罩，尽量减少与他人接触或对话。
- 从机场回家时，建议自驾或乘坐指定的机场大巴或KTX(指定车厢)。
 - *回家路上禁止造访其他场所，请径直回家。
- 到家后，立即向所在地管辖保健所致电通报自己是居家隔离对象。
- 请务必利用指定的交通手段移动至指定的隔离设施。
- 请务必安装韩国行政安全部的“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
- 在14天的隔离期间内，须遵守“自我检测”和“自行隔离对象生活”守则。

Android Google play App store 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使用指南

*回国的韩国公民和长期滞留外的国人请务必安装韩国行政安全部的“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在14天的隔离期间内，须遵守“自我检测”和“居家隔离人员生活”守则。(ID: CORONA)
(若实际居住地址或联系方式有变动，请务必向所在地管辖保健所通报。)

http://url.kr/9dqRor http://url.kr/5rmtzH http://url.kr/f7dmWs

2020.06.12.



韩国入境人员 隔离注意事项

隔离人员生活守则

- 隔离人员遵守事项
 - 禁止脱离隔离地点，以防病毒感染与传播
 - 隔离人员须在独立空间生活，共同使用的空间，务必经常通风
 - 若不能在独立空间独自生活，请向所在地管辖地保健所请求帮助
 - 接受诊疗等若必须外出时，请务必先与所在地管辖地保健所联系
 - 与家人或同居人分开使用个人用品(个人毛巾、餐具、手机等)
 - 出现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时，立即通知所在地管辖保健所
- 隔离人员的家属及同居人须知事项
 - 家属及同居人应尽量避免与隔离人员的接触
 - 必须与隔离人员接触时，须佩戴口罩，保持两米以上的距离
 - 注意观察隔离人员的健康状况
 - 经常擦拭桌子表面、手把、浴室工具、键盘等经常触摸的物品
 - 若家属或同居人从事与多数人接触的工作(学校、补习班、托儿所、幼儿园、社会福利设施、月子中心、医疗机关等)，直到隔离人员解除隔离，请停止工作

个人卫生守则

- 用流动的水勤洗手，每次洗手不少于30秒
- 咳嗽时请用衣袖遮住口鼻
- 未洗手前不可触摸口鼻眼等
- 室内经常通风
- 出现发热、呼吸困难等相关症状或到医疗机构接受诊疗时，请务必佩戴口罩

居家隔离期间请务必遵守相关隔离措施，不得擅自脱离隔离场所，违者将佩戴“安心电子手环”，若拒绝佩戴手环将被送至指定设施接受隔离。(隔离设施使用费自负)

若不遵守上述事项，根据相关法令，可被处以一年以下的有期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若违反内容涉嫌非法行为，造成韩国有关当局需采取追加防疫措施或因传染扩散等带来国家损失可追究民事赔偿责任。

2020.06.12.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MANDATORY QUARANTINE INSTRUCTIONS FOR ALL INCOMING TRAVELERS TO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l incoming travel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14-day quarantine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and ending at 12:00 of the 15th day.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June, you are required to stay under mandatory quarantine until 12:00 of 15 June.)

ONCE YOU ARRIVE AT AIRPORT

- Wear a facemask at all times and avoid contact or talking with other people.
- You are required to be tested if you have suspected symptoms.
- FOREIGNERS ON SHORT-TERM VISIT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their own expense)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 IF YOU BOARDED FROM EUROPE OR THE UNITED STATES: You will be tested at an open walk-through screening station at airport and enter quarantine/isolation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 IF YOU BOARDED FROM COUNTRY/REGION OTHER THAN ABOVE: You will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and will be tested within 14 days.
- Note) Those who have valid quarantine exemption are required to be tested and will be subject to active monitoring for 14 days by designated public health officials. The designated official will check and monitor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 * Valid quarantine exemptions are:
 - Pre-approved waiv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 A1 (diplomat on duty) or A2 (government official on duty) visa or a "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ssued in advance by a Korean Embassy.
- FOREIGNERS ON LONG-TERM VISIT (i.e. living in Korea)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in their homes.
 - IF YOU BOARDED FROM EUROPE OR THE UNITED STATES: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3 days, regardless of symptoms.
 - IF YOU BOARDED FROM ALL OTHER COUNTRIES: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contact the public health center of jurisdiction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3 days (i.e.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regardless of symptoms.
 - * Further actions may follow contingent on test result.
-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FACILITY QUARANTINE:
 - Use the designated transit vehicle to move to your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2020.08.31.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 When you leave the airport, 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Use a personal car or designated mode of transit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or KTX train).
- * Go home directly from the airport. Do not make stops in other locations.
- As soon as you arrive home, call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to inform them that you are under quarantine.
-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your phone. (This is mandatory)

Android Google Play App Store ABOUT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all Korean nationals and all foreign nationals on long-term visit) are required to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on their mobile phone and comply with the quarantine rules for 14 days of quarantine. (ID: CORONA) (If there is any change to your phone number or where you live, you must notify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as soon as possible.)

http://url.kr/9dqRor http://url.kr/5rmtzH http://url.kr/f7dmWs

HOME QUARANTINE GUIDELINES

- INSTRUCTIONS FOR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protect other people in your community from possible infection, do not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i.e. your home) as much as possible.
 - If you need to leave home for an essential need (such as getting medical care),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irst.
 - Make sur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 If there is any space in your home that is shared with other household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roommates, and cohabitants), make sure that the common space is frequently ventilated.
 - If you are unabl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ask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or help.
 - Keep your personal items (such as towels, eating utensils, and mobile phones) separat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 Immediately report to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begin to show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respiratory symptoms.
- INSTRUCTIONS FOR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your best ability, avoid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make sure to wear a facemask and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 meters between you and the person.
 - Closely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Keep clean all frequently touched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bedside tables, and keyboards.
 - If your work setting involves frequent contact with many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r household member is released from mandatory home quarantine.

GENERAL INFECTION PREVENTION TIPS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 when coughing.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Wear a facemask if you have fever or respiratory or respiratory symptoms, or when you visit hospitals, clinics, or pharmacie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a location-tracking wristband that wirelessly connects to your phone's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designated facility at your own expense.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2020.08.31.

Исследование от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 случаях насилия среди детей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폭력 줄이려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교육해야



문제 насилия в подростковом периоде стоит очень остро во всем мире, что привлекает не только общество, но и науку. Ведь буллинг в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серьезны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однако все чаще конфликты в межличност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 элементами насилия становя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нормой.

Ругань и хамство ст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детьми, но также и в общении со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что уже показывает болезненность общества.

Как предотвратить такую проблему среди детей?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рекомендуют развивать эмпатию у детей еще с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условиях размывания многих ценностей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ивать ребенку способность понимать и принимать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таким какой он есть: его чувства, мысли, мнение, цели и т.д. Используя принцип, основанный на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дети, но и взрослые должны жить в мире с друг другом и проявлять терпим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ужому мнению и образу жизни. Именно отсутствие толерантности в обществе, или даже в стенах школы, приводит к случаям насилия. Необходимо научить детей проявлять терпимость к тем, кто хоть немног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других.

Возможно, многие скажут что это прост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и ничего уже нельзя сделать. Однако замалчивание того, что проблема существует, лишь усложняет положение детей. Реагировать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ситуация не стала необратимой. Нужно выяснять причину каждого отдельного случая и тщательно подбирать способы воздействия и решения.

В Корее, как известно, общество все больше становитс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Не будем скрывать, что случаев насилия в школах не сократилось.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чень сильно обеспокоено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ей.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конфликтов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школах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специальны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лекции, которые меняю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детей о народах, культурах, предрассудках о какой-либо стране. Целью данных лекций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ние того, что различие в культурах -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е явление. Имея другой цвет кожи, глаз или волос не делает человека плохи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лекции помогают прививать толерантность детям.

Кроме этого 10 сентября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оведен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 случаях насилия в школах.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опроса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созда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конфликтов среди детей. Опрос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14 сентября по 16 октября среди учеников, начиная с 4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и заканчивая 2 классом старшей школы. Опро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сайте <http://survey.eduro.go.kr/>, где каждый ученик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доступ и сообщить о случаях насилия. На каждый запрос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полный ответ от техподдержки.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а сайт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7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языков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тайский, филиппинский, русский).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집에서 방치되는 다문화가정 자녀 상현이에게 지역사회가 내민 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처음 사각지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우리동네 빅마마’



“선생님이 오기 전엔 공부가 재미없어서 게임만 했어요. 게임 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냥 TV만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상현이(가명)는 빅마마 선생님이 오기 전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엄마는 회사에 가야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현이는 하루 종일 방치돼 있다시피 했다.

상현이 아빠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평소에도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았던 아빠는 외국으로 나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연락이 닿지 않는다.

엄마는 결국 가족을 방치하는 아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야 상현이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불을 깔면 방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는 3평 짜리 원룸에서 그렇게 상현이와 상현이 엄마가 살고 있다.

여전한 사각지대,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 못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현이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다닌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3시부터 갈 수 있다. 엄마가 회사에 간 후 10살 상현이가 3시 전까지 집

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혼자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 상현이 말대로 그저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상현이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아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보기도 했지만 며칠 가지 못했다.

맛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현이는 이용할 수가 없다. 아빠가 있어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9,89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가 공장에 다녀서 겨우 먹고 사는 데 많은 이용료를 내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요”

지역 엄마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엄마가 되어줘요

상현이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러다 지난 5월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남편과의 문제로 사례관리 서

비스를 받았는데 상현이가 집에서 방치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센터에서 ‘우리동네 빅마마’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우리동네 빅마마’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방치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고 40~50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빅마마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다문화가정에 파견한다.

4일간 하루에 6시간씩 총 24시간의 교육을 받은 빅마마는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발굴 ▲자녀 돌봄 서비스 ▲심리 정서지원 및 학습지도 ▲다문화가족 및 부모교육 등의 일을 진행한다. 다양한 이유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돌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달라진 아이의 일상, 독서일기도 시작했어요

빅마마 선생님이 집에 온 이후로 상현이의 하루는 달라졌다.

상현이는 이제 선생님에게 이끌려 학교 수업을 듣는다. 모르는 내용은 옆에서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도 잘 된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알림장도 선생님이 다 챙겨주니까 엄마의 부담도 덜었다.

상현이가 매일 책을 읽게 된 것도 큰 변화다. 빅마마 선생님은 매일 상현이와 책을 읽고 아주 간단하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기록하는 독서일기도 시작했다.

상현이가 밥을 거르거나 삼각 김밥으로 때우는 일도 없어졌다. 빅마마 김미숙 씨가 도시락을 싸와 같이 먹기 때문이다.

“핸드폰으로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듣는데 상현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일상이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상현이네처럼 꼭 필요한 가정에 나가서 그 아이를 위해

일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현재 상현이네는 두 명의 빅마마 선생님이 상현이가 학교에 가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이틀씩 4일을 방문하고 있다.

고립되는 아이들,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다

선생님은 상현이가 30페이지에 달하는 독서일기 파일을 다 채우면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상현이가 말한 소원이 너무나 평범하다.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놀고 싶어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강아지가 좋아요. 엄마랑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노는 것이 저의 소원이예요”

생활에 여유가 없는 엄마가 외출을 삼간 탓에 상현이의 소원은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노는 것이 됐다.

독서일기 파일이 날마다 채워지고 있어서 조만간 상현이는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놀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집에 와도 상현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화장실에 불을 켜두는 일이다. 엄마가 회사에 가면 혼자 생활하는 상현이가 두려움을 잊기 위해 하는 일 바로 화장실에 불을 켜두는 일이다.

이현주 센터장은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관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치되다 보니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최근엔 학교에도 가지 못해 외부와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아이들을 지역 안에서 먼저 돌보면 어떨까, 지역의 엄마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엄마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고민하다 빅마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회를 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